

지역현안 공약화 재탕은 경계하자

4·13 총선 리포트 D-114

고질적 문제 해결 '때마다 되풀이' 예비후보, 주민 위한 이슈화 필요

4·13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후보들이 공약으로 담아낼 인천발전 여젠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래전부터 해결 과제로 꼽혀 온 고질적 현안부터 최근 지역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핵심 이슈까지, 이미 스스로를 '해결사'라 자처하는 예비 후보들의 이슈 선점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현재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모두 38명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하는 인사들과 12명의 현역 의원 등을 합쳐 60~70명가량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며 유권자 표심 잡기를 위한 핵심 공약 점검에 분주하다. 대부분 유권자 표심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대단위 도시개발과 토목·건설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민심의 향배를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복지 공약 점검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예상되는 인천지역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중·동·옹진외의 경우 제3연륙교 조기 건설과 인천항만 배후단지 조성,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제외, 강화갯벌국립공원 추진, 월미도 원도심 상권 개발, 서해 5도 주민 지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남구의 경우 문학산성 원전 개발 및 복원과 원도심 개발이, 연수구는 인천LNG기지 탱크 증설과 경제자유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제외, 남동구는 장수~서창 고속화도로와 소래포구 국가항만 개발 등이 관심거리다.

부평구는 부평미군기지 이전 및 조기 개발과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계양구는 계양산성 복원과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활성화,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루원시티 개발 등이 화두다.

지역별 현안과 함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정치적 쟁점도 적지 않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논란과 사회복지예산 예산 지원을 두고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서구·남구·부평·계양 대다수 지역구를 아우르는 공동 과제로 손꼽힌다.

문제는 이들 과제가 어제오늘의 현안이 아니라는 데 있다. 대부분 매번 총선 때 대표 공약으로 거론된 해묵은 사안이다.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언론인클럽, 인천경실련 등이 지난 2012년 총선에 앞서 발표한 '19대 총선 인천 여젠다'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공공의료 및 복지예산 확대,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부평미군부대 이전, 루원시티 등 원도심 개발, 경제자유구역 규제 철폐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20대 총선에서도 지역을 위한 해결 가능하고 참신한 공약이 아니라 과거와 똑같은 공약이 되풀이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 관계자는 "총선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이 주민을 위한지, 유권자는 어떤 후보가 주민을 위한 공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jih@kihoilbo.co.kr



남구 해피바이러스 산타 원정대 발대... 이웃에 사랑 전달 성탄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남구 해피바이러스 산타 원정대 발대식이 20일 인천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산타 복장을 한 봉사자들이 두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시, 국내외 회의 100건 유치 '마이스도시'로 뜬다

<29건 유치 완료>

인천시가 '마이스(MICE) 도시'로 급부상한다. 국내·국제회의 유치와 관광·스포츠 행사 개최, 지역특화 전시산업 육성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마이스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을 노린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국내·국제회의 유치 목표를 100건으로 잡았다. 유치 목표를 달성할 경우 2천27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8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천154명의 고용 유발 효과, 365억 원의 소득 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내년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학술대회'와 '2016 아시아 미디어 서밋', 'I AQVEC 2016(실내공기질 및 환경, 에너지 절약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등 29건의 국내·국제회의를 이미 유치했다.

또 관광과 스포츠 등 대형 이벤트 유치에도 나선다. 특히 관광과 관련, 중국 관광객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베이징 자동차 등 중국 우수 기업의 인센티브 관광과 골프대회와 연관된 골프산업 박람회, 골프 아카데미 등 스포츠 행사 개최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한·중·일 국제 애니메이션 엑스포 인천' 개최를 계기로 애니메이션 산업을 인천의 대표 마이스산업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번 행사로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포함한 총 30만 명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5천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천5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전망했다.

지역특화 전시산업도 활성화한다. 물류, 항공, 첨단자동차, 관광, 바이오, 로봇, 녹색기후금융, 뷰티 등 8대 전략산업과 연계된 전시회를 개최해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그러나 '마이스 도시 인천'이 되기 위한 장벽이 많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등 타 시도가 갖추지 못한 지리적 이점이 있음에도 부산 등이 거둔 실적에 못 미친다. 부산의 전시컨벤션센터인 벡스코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행사 개최 건수가 1천 건을 넘어섰다. 따라서 마이스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을 필두로 전시공간과 회의시설 확충, 숙박시설과 백화점 등 상업시설 확충, 공연장·테마파크 등의 문화·예술·관광시설을 집적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래의 성장산업인 국제회의, 대형 이벤트와 지역특화 전시회를 적극 유치·개최함으로써 국제도시와 마이스도시 인천이라는 브랜딩을 확립할 것"이라며 "인천의 가치가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세계에 관광·스포츠 특화	세계 속에 인천 홍보	무엇이 필요한가	기호 INSIDE
중국 기업 인센티브 관광	한중일 애니 엑스포 열고	송도컨벤시아 2단계 필두	인천시, 올 성과와 부진사업 ▶ 3
골프 등 체육 이벤트 연계	8대 전략산업 활용해 전시	전시공간·회의시설 확충	시립박물관장의 애장도서는 ▶ 4
유기 끌어모을 전략 활용	수천억 생산유발효과 기대	상업적 인프라도 늘려야	인천에 인차이나센터 구축 ▶ 7

이참에, 송도 영리병원도 성사되나

정부 '제주에 첫 승인'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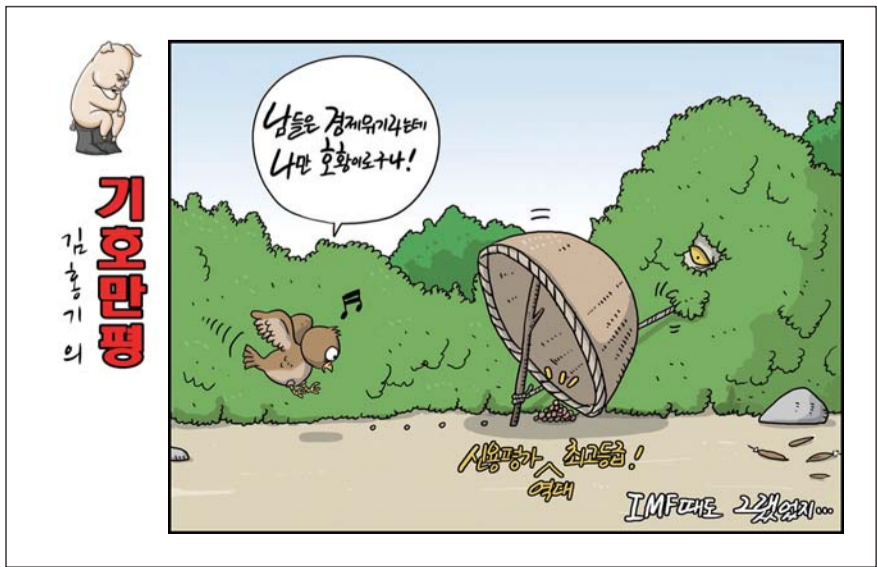
정부가 제주도에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면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영리병원의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외국계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정부는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외국계 영리병원을 허용한 상황으로, 송도국제도시가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첫 번째로 영리병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2013년 인천경제청·인하대병원과 송도에 한진의료복합단지를 짓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양해각서에는 '향후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나 시는 한진에 '투자개발형 의료법인'과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설립 검토를 요청했고, 이를 검토하던 한진은 올해 초 포기를 선언했다.

인천경제청은 영리 또는 비영리를 떠나 미국과 중국 등 투자자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승인이 송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소 규모인 제주와 달리 최소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이 필요한 송도의 경우 뚜렷한 투자자도 나타나지 않는 데다 의료체계 붕괴 등의 우려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연세의료원이나 경희대병원 등 국내 대형 병원들도 추가 확장을 철회하는 등 국내 의료산업 전반이 침체된 상황이라서 송도에 외국인 전용의 영리병원을 지을 경우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정부는 수도권에서 먼 제주보다 경제구역 내에서의 영리병원 추진을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도가 탄력이 붙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와 시비로 병원 건립비를 부담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새로운

이제 시작입니다!

혁신으로 시작한 경기교육.
공감으로 더 넓혀갑니다.

경기도교육청

재정난 인천시, 복지재단 재추진 논란

유 시장 공약 市 재정에 발목 내년 조례 제정 등 강행할 듯

지난 7월에도 사업부류 판정 기관 통폐합 정책에도 상반 시 "2兆 복지예산 체계관리"

인천시가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재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2017년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목표로 내년에는 이를 위한 사전 절차와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017년까지 출연금 3

0억 원, 직원 10~15명 내외로 가장 재단법인 인천복지재단을 구성하고 ▶인건형 복지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평가, 컨설팅 ▶민관협력 복지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교류 ▶복지재단 기금 조성·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맡기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의 주요 복지 공약이기도 한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그동안 수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상태여서 재추진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유 시장 당선 이후인 지난 해에는 심각한 시 재정난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올해도 지난 7월

열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보류 판정됐다. 당시 심의위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시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진행하는데 또 다른 출자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책 기조와 맞지 않고, 시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적절하지 못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시는 연간 2조 원에 이르는 복지예산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해서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업무에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행자부와 재단 설립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복지재단은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발 및 구축 등을 위해 설립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기본재산 출자·출연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 복지재단 설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ohoibo.co.kr



온가족이 즐거운 눈썰매 휴일인 20일 인천 서구사계절눈썰매장을 찾은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눈썰매를 타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최만규 기자 cmg@kohoibo.co.kr

시, 환경관리 모범업체 9곳 정기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정착 2007년부터 우수기업 선정

인천시가 모범적으로 환경관리를 이행하는 지역 업체 9곳을 2016년도 환경관리 우수기업으로 선정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환경 관련 인·허가를 받은 인천지역 기업 중 모범적으로 환경관리를 이행하고 있는 9개를 2016년 환경관리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패를 수여했다.

이번 환경관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대길그린, 동아알루미늄, 린나이코리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소망화장품, 셀트리온, 에몬스가구, 풍전비철, 화성금속 등 9개다.

이들 기업들은 등급에 따라 1년에서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면제 받게 되고, 환경시설 개선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기술 전문가에 의한 환경시설 기술진단 기회 부여 등의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양길모 시 공단환경팀장은 "앞으로도 모범적으로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를 적극 발굴해 자율적 환경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천 소재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해 모범기업으로 육성하고, 시와 기업 간 파트너십으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이루고자 지난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ohoibo.co.kr

인천 원도심 2곳 주거 수요맞춤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확충나서

인천시가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상지인 중구 인현동과 동구 만석동의 영구 임대주택 28호에 대해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7월 착공에 들어가 2017년 4월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시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임대주택의 양적 공급이 중요시 됐다면 이제는 원도심의 지역 특성에 따라 소규모로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주거 수요에 맞춰 건설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기반이 갖춰진 원도심에 소규모로 주택과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하기에 취약계층의 생활기반 변경없이도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시는 저소득층 임대 수요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전·월세 상승으로 주거문제 해결이 필요한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계획이 승인된 동구 만석동은 중구와 동구 경계지점으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노후된 곳이었다. 시는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별도 사업으로 주변 마을정비 계획도 수립한다

는 계획이다. 중구 인현동의 경우 기존 저층주거관리사업과 연계해 쪽방촌과 철도부지 용역을 정리하고, 임대주택, 노인정, 공원 등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시는 향후 남동구 논현역 행복주택 50호를 비롯해 지난 3월 선정된 총 3곳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차별화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재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인천시의 전략"이라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ohoibo.co.kr



안양대학교
ANYANG UNIVERSITY



한구석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

창의융합

강소대학

2016학년도 정시모집 안내

구분	모집기간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width: 30%;"> <p>나 군 (정원 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생 - 수능전형(수능 60% + 학생부 40%) </div> <div style="width: 70%;"> <p>2015. 12. 24(목) 09:00 ~ 12. 30(수) 17:00 까지</p> </div> </div>	<p>기업으로부터 국가, 나아가 글로벌 세상이 필요로 하는 Needs가 있습니다 안양대학교는 그 Needs를 넘어 세상을 밝혀줄 창의융합의 아름다운 리더를 만들어갑니다</p> <p>ANYANG UNIVERSITY</p> <p>입학문의 입학관리과 031-463-1234-7 입학사정관팀 031-467-0851-2</p>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width: 30%;"> <p>다 군 (정원 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생 - 수능전형(수능 100%) - 실기(공예예술학과, 음악학부) </div> <div style="width: 70%;"> <p>• 인터넷접수 • - https://enter.anyang.ac.kr - www.uwayapply.com</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width: 30%;"> <p>나·다 군 (정원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종합 - 농어촌·도사벽지학생 - 기회균형 - 단원고특별전형 - 특성화고 등 졸업한 재직자 ▶ 학생부교과 - 특성화고교 졸업자 </div> </div>	

인하대 대학원 다문화학 학술포럼

한국사회에 던진 외국인 사회통합 위한 고민들

인하대학교 대학원 이만다문화학연구회는 18일 정석학술정보관 대회의실에서 최순자 총장, 박정희 다문화학과장, 정영태 교수를 비롯한 전공 교수진과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이만다문화학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만다문화학 관련 연구논문 및 현장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인천·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박은희(다문화학·박사과정)씨의 '안산시 다문화도시 클러스터 정책전략', 이연옥(다문화학·박사과정)씨의 '불법으로 체류 및 노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 용어를 중심으로'가 이어졌다. 또 김승일 교양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이만다문화학 현장사례'를 발표했다.

박정희 학과장은 "이번 학술



2015 이만다문화학연구회 학술포럼

발표회는 명실 공히 한국에서 이만다문화학의 초석을 충실히 다져왔던 인하대 대학원 다문화학과와 그간 연구 성과를 널리 공유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사회 통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도전 과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인하대 대학원 다문화학과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정책과 실천을 분석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과 방법론을 개발해 학문·실천적 전문기를 양성하기 위해 2011년 3월에 신설됐다.

연구회는 앞으로 인천지역 내 이민과 다문화 관련 모든 연구자들과 활동가들로 문호를 넓혀 '인천다문화포럼'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ohoibo.co.kr

강화군, 농가 소득보전 124억 지급

강화군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108억 원, 발농업 직접지불금 8억 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금 8억 원 등 총 124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발농업 직불금은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읍면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강화군의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1만331ha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7천209농가다. 1ha당 지급단가는 지난해 평균 90만 원에서 올해는 평균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발농업 직접지불금은 지목상 전(田)에 콩, 고구마 등 26개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밭과 겨울철 이모작으로 식량,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지목 구분 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

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모든 밭작물 재배 농가에 ha당 25원의 밭 고직불금이 추가 지급돼 지난해 지급액 3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된 8억 원을 380농가, 256ha에 지급한다.

농업 생산성이 낮고 경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 지급하는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는 5천431농가 1천593ha에 8억 원을 지급한다.

조건 불리 직불제는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실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강화·김해호 기자 kmh20@kohoibo.co.kr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시청홀에서 우호도시인 요코하마시와 인천시 직원 합창단의 합동공연에 참석해 격려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한일 공무원 화합 하모니

인천-요코하마 직원 합창 무대

인천시와 일본 요코하마시 공무원 합창단이 합동으로 아름다운 하모니 무대를 펼쳤다.

인천시 직원 합창동호회인 '코스피탄타지'는 18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런치콘서트에서 우호도시인 일본 요코하마시 직원 합창단 '뽀꼬아 뽀꼬(ぼこあぼこ)'와 합동 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은 시 직원 동호회에서 기획한 최초의 국제 합창 교류무대로 양 도시 합창단 50여 명이 함께 연말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정서를 담은 노래를 시민들에게 선사했다.

변주영 코스피탄타지 단장은 "우호도시인 요코하마시 직원들과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음악을 통해 언어와 국경을 넘는 우정을 확인하게 됐다"며 "앞으로 요코하마시를 비롯해 다른 자매우호도시와도 합창 교류를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요코하마시 직원인 미야모토 유코 씨는 "한국 노래를 부르며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를 알게 돼 좋았다"며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어 무척 기뻐했다"고 했다.

조현경 기자 cho@kohoilbo.co.kr

선출직 출신들 금배지 쟁탈전 참가 위해 예비후보 출사표

4·13 총선 리포트

이운성·안덕수·조택상 등 총 12명... 전체의 32% 달해 지역 정가 "유권자 선택 받았던 인물 국회입성 노릴만"

4·13총선 예비후보에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출신이 대거 등록해 이들의 본선 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3 총선 인천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모두 38명에 달한다. 이 중 선출직 출신은 기초의원(2명), 광역의원(5명), 기초단체장(1명), 전직 국회의원(4명) 등 모두 1

2명으로 전체의 32%에 달한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부위원장으로서 연구에 등록된 이만재 예비후보는 선인고와 인천전문대(무도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6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었다.

남동갑에 출마한 새누리 구본철 후보는 제물포고교와 인하대를

나와 18대 국회에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역시 남동갑에서 같은 당 후보로 예비 등록한 이운성 후보는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4선의 남동갑 터줏대감으로 지난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5선 도전에는 실패했다.

서구강화읍에서는 19대 국회의원이던 안덕수 전 의원도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안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의원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번 20대 총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 출신으로는 중·동·웅진 지역에 출사표를 낸 정의당 소속 조택상 전 동구청장이 유일하다.

이와 함께 광역의원 출신은 새정

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남구읍에 등록된 신현한 전 인천시의원과 서강화읍에 등록된 전원기 전 의원이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으로는 연수 선거구에 등록된 신호수 전 시의원과 4·5대 인천시의원을 지낸 강석봉 전 의원이 남동읍에, 부평읍에는 5대 하반기 시의회 의장을 지낸 강창규 전 의원 등 모두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기초의원 출신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강화읍에서는 홍순목

전 서구의원과 서강화읍에서 송영우 전 서구의원 등 모두 서구의회 출신이 이름을 올렸다.

인천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출직 출신들은 이미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인물들이라 당선에 초점을 맞춘 배포 있는 도전이 대부분"이라며 "유력 후보자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정치 신념을 갖고 있는 만큼 국회 입성도 노력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ijh@kohoilbo.co.kr

[명] 사상 최대 국비·교부세 확보 [암] 기관 통폐합·로봇랜드 사업

인천시, 올 성과·부진 사업 선정... 다각적 해법 모색

인천시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과가 있었던 사업과 부진사업을 뽑았다.

시가 성과가 있었다고 꼽은 사업은 국비 및 보통교부세 사상 최대 확보, 국립 세계문화유산 유적, 경인고속도로 이관 협약 체결 등이다.

시는 올해를 '국비와 보통교부세 사상 최대 확보'라는 희소식으로 산뜻하게 출발했다. 2015년 국비는 2조853억 원, 보통교부세는 4천30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또 재정분야와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혁신으로 추진된 공사·공단 임금피크제 도입도 전국 최초로 이뤄졌다. 지난 9월 22일 인천시설관리공단을 시작으로 24일 인천도시공사, 30일 인천환경공단과 인천교통공사 노조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2003년 이후 채무 규모가 최초로 감소한 해이기도 하다. 시는 12년 만에 부채를 감축, 채무규모는 지난해 대비

598억 원이 감소한 3조1천983억 원, 채무비율은 2.9%p 하락한 34.6%다.

문화 분야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시는 지난 7월 인천 최초의 국립문화시설인 '세계문화 박물관'을 유치했다. 세계문화 박물관은 2020년 개관 목표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공원 내에 건립한다. 규모는 2만5천㎡, 사업비는 1천24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세계 문화의 탄생과 발달 과정, 문자 관련 인물사, 문자의 활용 및 세계 문화의 미래상을 조망하고 체험하는 공간도 만들어 세계 문화 교류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할 것을 자신했다.

아울러 문화산 정상 50년 만에 개방, 경인고속도로 이관 협약 체결, 수도권매립지 정착개선 인천시 권한 확보 등이 올해 성과로 꼽힌다.

부진사업으로는 공공기관 통폐합, 로봇랜드사업 등이

다.

시는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위해 경제·문화·여성 등 유사 중복 기능을 가진 기관의 통폐합을 시도했으나 대시민 소통 미흡으로 일부 계획은 철회되기도 했다. 시는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혁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로봇랜드 사업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높은 토지 가격과 복잡한 사업 주체로 인해 민간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이다. 사업비 7천584억 원 가운데 민간자본이 5천514억 원을 차지하지만 투자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방식을 단계적 개발로 변경하고 사업 주체를 단순화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인천시 성과사업과 부진사업을 꼽아봤다"며 "잘된 사업은 정찬을,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은 문제점을 파악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ohoilbo.co.kr

동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평가서 '우수기관'에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열린 '2015년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알찬 교육 실시 ▶ 철저한 순회 방문지도 통한 급식소 수준 향상 ▶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의 영양교육 지원 ▶ 포괄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Smart 100! Children Health Care Program' 등 차별화된 특화사업 실시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특히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사)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에서 '바른 밥상 밝은 100세'라는 주제로 시행된 '2015 바른 식생활교육 교구·교재 공모전' 우수상, '2015년 전국 영양사 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당류 섭취 줄이기 유아교육 콘텐츠 공모전' 장려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유경 기자 cyt@kohoilbo.co.kr

남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면 더 이상 배우지 마라!
사치다.

내가 만드는 대학 - 도전학기제

성안의 고고함을 동경하지 마라!
세상은 언제나 저갓거리에서 일낸다.

Location Premium - 경기과학벨트 산학중심대학

홀로 세상에 돋보일 것인가, 함께 세상을 움직일 것인가?
합치는 만큼 커진다!

Killer Zone - 강점융합연구

번듯한 길 한 켠에는 멋진 오솔길도 있다.
세상은 외길이 아니다!

또 하나의 전공 - 트랙FIVE

모자람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배려다.
남음에서 남을 생각하는 것은 동정일 뿐!

사회적 이동성 제고 - 'After You' 프로그램

세계는 스펙국제화가 아니라, 마인드 국제화로 통한다.
Act Now!

취·창업형 국제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어라!
어울림이 큰 어울림이다.

빛나는 눈빛, 따뜻한 가슴 - Ajour Integrity

creative for great
GREATIVE

과파같은 진짜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 GREATIVE다

아주대학교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12/24 ▶ 30일 www.ajou.ac.kr 031-219-3981

인천 곳곳 숨겨진 음식문화 사람냄새 나는 인생사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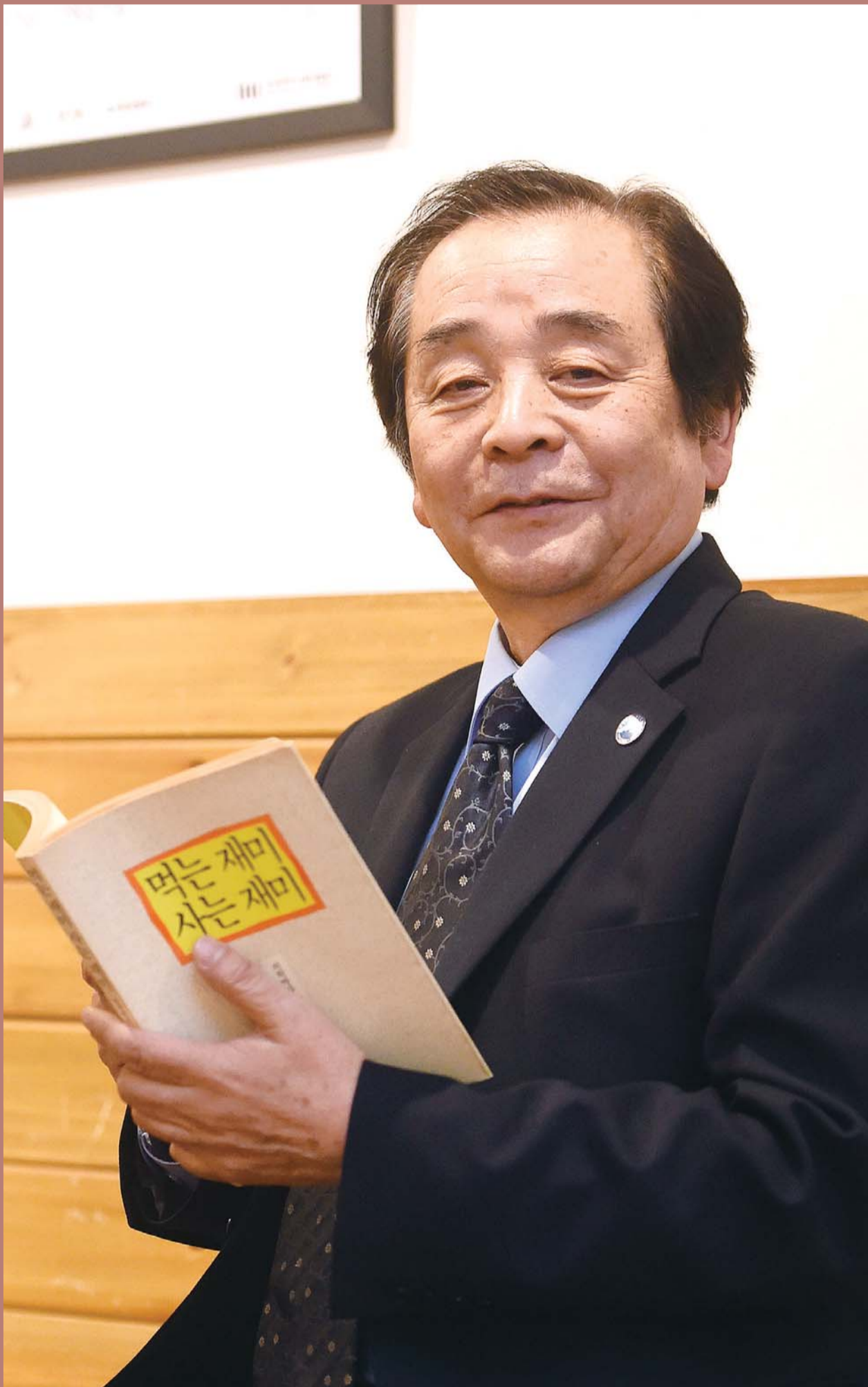
조우성
인천시립박물관장

신태범
먹는 재미, 사는 재미

“나에게 가장 진실한 책은 ‘사람’입니다. 한 권의 책이 가져다주는 감동도 크겠지만, 사람에게서 얻는 것을 넘어서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책도 사람이 썼고, 사람이 사는 우리네 인생사가 모두 ‘책 속에 담겨 있다’는 한결같은 믿음이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지정을 기념해 기호일보사가 진행하는 ‘인천시민과 명사가 함께하는 애장도서관’ 스물일곱 번째 명사로 조우성(67)인천시립박물관장을 초대했다. 조 관장은 시인이자 교사, 언론인, 향토사학자 등 수없이 많은 직함을 갖고 있는 인천의 어른 중 한 분으로, 향토사학자에 더 무게중심이 쏠리는 탓에 인천을 얘기할 때 그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다. 그가 말하는 책, 그리고 사람과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더듬어 보자.



조우성 인천시립박물관장 프로필

1948년 인천 출생
1975년 월간 시지 「심상」 신인상 수상으로 문단 등단
2000년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2013년 계간 「리뷰 인천」 발행인
2014년 인천발전연구원 이사
2015년 선광문화재단 이사
2015년 현 인천시립박물관장

저서
「인천이야기 100장면」, 「20세기 인천문화생활연표」
시집 「소리를 테마로 한 세 편의 시」, 「아프리카」, 「코뿔소」 등

수상
제17회 인천시문학상
제1회 인천사랑운동 대상
제1회 인천언론인대상



한옹(汗翁) 신태범 박사를 추억하다 “책에서 ‘사람’을 봐야 한다.” 조 관장이 책을 선택하는 일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 바로 ‘어떻게 책을 읽느냐’인데, 그 어떻게라는 물음의 답은 언제나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책을 고른 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는 인생의 지혜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 관장은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그 중심에 서게 하는 애장도서관 스스로 인생의 큰 스승이자 아버지처럼 모셨던 한옹 신태범(1912~2001)박사의 「먹는 재미, 사는 재미」를 추천했다.

그는 신박사의 이 책이 솔직한 인간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소개한다.

“먹는 재미, 사는 재미”에는 맛 칼럼도 실렸는데, 육개장 맛이 일품인 ‘아리랑’이라는 집에 대한 소개와 냉면·생선·탕 등의 숨은 맛집을 소개하기도 했다.

중년 이후 집중한 식문화에 대한 탐구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음식의 맛뿐 아니라 음식을 통해 삶의 철학까지 담으려 했던 철학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늘 가까이에서 곁을 지켰던 조 관장은 신박사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 준 이야기를 소홀히 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고 한다.

“지금도 후회스러운 것은 매달 박사님을 배워서도 그 흔한 녹음기로 선생님 말씀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수(88세)의 연세에도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짚어 주셨던 지난날의 역사와 오늘을 헤아려 보시는 말씀은 ‘지식

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준 한국 시민학계의 거장으로 칭송받고 있다.

조 관장은 박물관 선생과 얽힌 일화도 소개했다.

조 관장이 군 제대 후 4학년 졸업 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했는데 보기 좋게 낙방했다. 정월 초하루께 집에서 낙심해 있는 조 관장에게 박 선생이 근처 ‘동인천 다방’에서 보자는 전화를 했다. 박 선생은 숨을 헐떡거리며 정신없이 뛰어 온 젊은 조 관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춘문예에 작품을 냈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심사위원을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번 신춘문예에 나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 마지막까지 우성이 너 작품이랑 다른 작품이 올라갔는데, 내 어찌 널 가르친 스승으로 널 선택할 수 있겠나? 넌 내 수제자 아닌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 그래. 알겠나?”

조 관장은 자신을 아끼는 스승의 속



지역 최초 의학박사의 ‘먹거리’ 이야기
중년 이후 식생활+향토사 연구에 몰두
‘삶의 철학’까지 함께 풀어 독보적 가치
매달 저자와 만나며 소소한 일상 나누는 인생의 지혜 배웠던 추억 떠올리게 해

조 관장이 소개하는 신박사는 인천 최초의 의학박사이자 지역에서 최초로 병원을 개업한 인물로, 우리에게 「인천한 세기」, 「미국사 연의」의 저자이자 대표적인 인천 향토사가로 알려져 있다. 신박사는 언론인 출신으로 현재 인천계항박물관을 이끌고 있는 신용석(74)관장의 선친이기도 하다.

“신박사님께서 여든여덟 되시던 해에 제게 부탁 하나를 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매달 한 번씩 만나 줄 수 있겠나?’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 저도 황설수 없었습니다. ‘박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찾아 뵈야죠.’ 그러니 선생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이 사람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걸세’ 하며 빙그레 웃으셨죠.”

그렇게 시작된 신박사와 조 관장의 한 달마다의 조우는 중구 신포동 ‘나 다방’에서 이뤄졌고 사람과 책, 그리고 하루 하루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 이어졌다고 등장했다.

「먹는 재미, 사는 재미」에 등장하는 먹을거리와 사람에 얽힌 재미난 일화는 늘 대화의 단골 소재로 쓰였다. 신박사는 「먹는 재미, 사는 재미」에 인천의 음식과 거리 곳곳의 모습을 담았다.

특히 「먹는 재미, 사는 재미」는 미개척 분야인 식문화 탐구서로서 대부분의 음식 관련 책들이 재미로 맛집 찾기에 그쳤지만 신박사는 우리네 식문화를 통해 우리 삶의 진실을 진솔하게 밝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달랐다. 신박사와 조 관장이 자주 찾던 음식점도 있고, 몸이 가장 좋은 음식에 대한 나름의 평가도 곁들여졌다.

“박사님은 식문화도 연구하셨는데, 제철에 나는 제철음식이 가장 맛있다는 지론이 있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철에 나온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게 가장 큰 먹는 기쁨이라고 하

의 보고’이자 ‘지혜의 단지’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문장력에서는 ‘무기교의 기교’라는 진수를 발휘하셨습니다. 어려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것은 쉽지만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만큼 선생님은 그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인천에서 몇 안 되는 인문학의 대부라 칭송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신박사는 향토사를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인문학적으로 풀어 쓴 유일한 인물로, 인문학적 소양과 문학적 소양이 한데 어우러진 글을 썼다고 조 관장은 소개한다.

의학도인 신박사는 일본 경성제국대를 나와 인천에서 최초의 의학박사로 개업한 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죽산 조봉암 선생 등과 문학적 교류를 하기도 했다. 해방 후 둘은 일본 고단사에서 펴낸 세계문화전집을 섭렵하며 우정을 쌓았다는 게 조 관장의 귀띐이다.

청록파 시인 박목월, 그리고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

인천고 65회 졸업생인 조 관장은 한양대 국문학과를 나와 인천 광성고 교사로 재직하던 1980년대 후반부터 신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시인으로 등단한 그가 산문집이나 신문 글을 쓰기는 여간 어려웠던 게 아니었다. 그런 그에게 영감을 주고 글쓰기의 외연을 넓혀 준 분이 스승인 박목월 시인이다.

박목월 선생은 1946년 공동시집 「청록집」을 낸 박두진, 조지훈 선생과 함께 청록파 시인으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자연미를 추구하고 국어를 순화해 생명의 원천에 대한 애정을 보여 줬고, 특히 일제강점기 빼앗긴 고향과 자연에 대해 노래하며 당시의 각박한 현실을 살던

깊은 진심을 듣고 코끝이 찡해졌다. “선생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조 관장은 기자 일을 하면서도 1년에 30편의 작품을 발표하는 열정 높은 시인이었다.

그런 조 관장에게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 또한 인생의 고마운 스승이다. 그는 새얼문화재단에서 발간한 「황해문화」의 창간 멤버로도 열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인천을 사랑하는 그대, 그대들 모두 시인이야

조 관장은 현재의 자신이 있기까지 모든 공을 주위 사람에게 돌린다.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인품이 넘치는 사람이다.

“주위 분들이 알게 모르게 후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게 오늘날 지역사회에서 글을 쓰고 직책을 맡고 사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특히나 신박사님 댁 것이 크고, 거꾸로 신박사님을 통해 아드님인 신용석 선배를 만난 것도 그렇죠. 여기에 삶의 지평을 넓혀 주신 지용택 이사장님을 모실 수 있는 것도 제게 큰 복입니다. 모두가 제게 고마운 분들이시죠.”

그런 조 관장이 자신의 인생길을 되짚으며 자신하는 최고의 찬사가 있다. 바로 지역을 사랑하는 인천 사람들의 여제와 오늘, 내일을 응원하는 한마디다. 인천이라는 곳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천시민에게 그가 건네는 한마디. 사람을 최고로 꼽고, 시인이란 직업을 그 사람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말이기도 하다. “인천을 사랑하는 그대, 그대들 모두가 시인이야~.”

대담=한동식 정치부장 dshan@khihoilbo.co.kr
정리=이재훈 기자 ijh@khihoilbo.co.kr
사진=최민규 기자 cmg@khihoilbo.co.kr

여야, 선거구 협상 타결 또 미뤘다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통과를 놓고 담판을 벌이기 위해 포즈를 취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닷새 만에 양당 지도부 해법찾기 나서
비례대표 선출 놓고 간극 못 좁혀 결렬
이번 주 추가 회동은 이어가기로 조율

여야 지도부는 20일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의 임시국회 통과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또 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동을 열었으나 주요 쟁점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이번 주 추가 회동을 계속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가 지난 15일 7시간의 마라톤협상과 17일 정의화 국회의장 공간에서 심야 회동

다. 이어 이번까지 닷새 만에 세 번을 연이어 만나면서 막판까지 몰린 선거구 획정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됐으나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의석수·정당득표율에 연동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어왔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새정치, 현역 20% 물갈이 착수 내달 중순께 공천배제자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1차로 '물갈이'하기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의 체점 작업이 주중 본격화돼 다음 달 초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 로드맵에는 22일부터 체점표와 자료를 토대로 체점을 시작해 1월 12일 평가를 완료한 뒤 1월 12일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하위 20% 공천배제자 발표는 빨

라도 1월 중순에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배제자 수는 시행체적이 마련된 지난 11월 기준 현역 의원 127명의 20%인 25명이다.
평가위는 그동안 의정활동·공약 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의 비율로 평가하기로 한 가운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에서 100여 개 세부 항목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평가 결과는 현역 의원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채 코드화된 상태로 말봉돼 공천심사를 담당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이관되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이를 열어 보기 전에는 의원별 순위를 알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공천원천배제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로 나서거나 특히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가시권에 들어온 통합신당으로의 합류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배제자 발표를 가급적 늦출 전망이다.
원천배제자를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지역구별 공천자를 발표하는 단계에서 선별적으로 평가위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서해북단 연평도 찾아 정 의장, 군장병 격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연말을 앞두고 지난 19일 연평도 연평부대를 방문, 해상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국군 장병들을 위문했다.
연평도 방문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상순(새누리·인천 중·동·웅진)의원, 황인무 국방부 차관 등이 동행했다. 육군 헬기 연평도를 찾은 정 의장은 연평도 평화공원을 찾아 고(故) 윤영하 소령 등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과 고 서정우 하사 등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2명의 추모비에 서서 참배했다.
이어 연평부대를 방문, 관측소에서 부대장에게서 부대 현황 및 작전대비 태세를 보고받은 후 부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연말연시를 맞아 서해 서북단 울진군 연평도 연평부대를 방문, 해상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이 연평도 평화공원에서 고(故) 윤영하 소령의 부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대 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정 의장은 "5년 전 연평도 포격 당시 많은 희생과 손실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해 연평도 포격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최종윤 "하남 미래 위한 지역일꾼으로 딱"

4·13 출사표



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가 지역대표 일꾼으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남의 미래에 딱 맞는 맞춤형 비전으로 ▶지하철 9호선을 감북·감일·춘궁·덕풍 등 원도심으로 연장하는 교통하남 ▶원도심화를 통해 인성의 평준화를 제시하는 교육하남 ▶지역 발전과 청년실업의 해소방안으로 차세대 친환경산업인 전기배터리기업의 유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khihoilbo.co.kr

내년에 있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하남시에 출마할 예정인 최종윤(사진) 단국대 겸임교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난 18일 신장동 선거사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종윤 예비후보는 "우리 하남시가 도농복합형에서 도시형으로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이 지역 출신으로 하남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헌법재판 어제와 내일 법제연, 오늘 정책포럼

한국법제연구원은 21일 오전 7시 서울 더플래츠호텔 로열볼룸에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초청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을 주제로 제1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전 헌법재판소장은 발제에서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현황 ▶헌법재판 원도심화로 연장하는 교통하남 ▶원도심화를 통해 인성의 평준화를 제시하는 교육하남 ▶지역 발전과 청년실업의 해소방안으로 차세대 친환경산업인 전기배터리기업의 유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전 헌법재판소장은 발제에서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현황 ▶헌법재판 원도심화로 연장하는 교통하남 ▶원도심화를 통해 인성의 평준화를 제시하는 교육하남 ▶지역 발전과 청년실업의 해소방안으로 차세대 친환경산업인 전기배터리기업의 유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런 자리가 향후 헌법재판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포럼의 개최 배경을 전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여의도 중계탑

철산·광명대교 확장 등 광명·서울시 교통현안 공조 논의

백재현 의원, 박원순 시장 만나 고척돔 주차난 대책 마련 모색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백재현(광명갑·사진)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광명과 서울시가 공유하고 있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정책공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백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시청 시장집무실을 찾아 박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철산·광명대교 확장장과 추가 대교 신설, 고척돔 개장과 관련한 향후 쟁점 등을 발표하고 거역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에 따른 지방비 분담, KTX광명역과 김포공항을 잇는 버스 노선 신설 등 광명시와 서울시가 공유하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
철산대교와 광명대교는 광명과 서울을 잇는 다리로서, 동·서 지역을 오가는 많은 시민 편의를 위해 확장이 필수적이다.
광명시 철산동에서 서울 구로구 가산동을 잇는 광명대교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보도 확장을 포함한 확장공사를 지난해 완공했지만 인근 지역 교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대교 신설 등 광명시와 서울시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

또 지난달 4일 구로구에 위치한 고척스카이돔이 개장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고척돔은 1만8천석 규모인 것에 비해 주차공간은 492면에 불과해 주차면당 관중 수가 전국 프로야구 경기장 주차장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야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구로구는 물론이고 광명시까지 주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과 서울에서 각각 출퇴근 등으로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백 의원과 박 시장은 의견을 나눴다.
광명사거리역에 설치할 승강편의시설은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나 상황에 따라 광명시와 서울시도 지방비를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백 의원은 박 시장에게 KTX광명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버스 노선의 신설도 제안했다.
백 의원이 제안한 노선은 KTX 광명역을 출발해 광명시청을 지나 구로구~양천구~강서구를 통과해 김포공항까지 가는 노선으로, 해당 노선이 신설될 경우 광명시민의 편의 제고는 물론이고 KTX 광명역을 이용하는 지방 주민들도 김포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TX 광명역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조흥복 기자 hbj@khihoilbo.co.kr

이상일, 언론단체 모범 의정상 잇단 선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새누리 용인을 당협위원장·사진)의원이 한국언론기자협회가 수여하는 '2015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인터넷 방송기자협회의 '대한민국 공정사 회발전 대상(의정 부문)'에 선정되는 등 각종 언론단체로부터 잇달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공정사회발전 대상'은 각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의정 부문에서는 법률안 발의 현황, 본회의 출석,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활동, 언론 보도, 사회공헌사항 등을



분석해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이상일 의원 등 8명이 선정됐다.
이상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NGO 모니터링 선정 '2015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베스트 20',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등을 수상하며 역량을 평가받았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전하진, 2015 국감 우수의원대상 수상

전하진(새누리·성남 분당남·사진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5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대상'과 '대한민국 창조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에너지산업 선진화를 비롯,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비전을 제안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c@khihoilbo.co.kr

전 의원은 "국내 에너지산업의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 공감감이 있었기에 이렇게 뜻깊은 상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국가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서 국가를 선도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4924-8229-624998

진료내역: 암, 뇌, 심장, 관절, 척추, 장기이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CATHOLIC KWANG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인천 서구청 인근 ☎ 대표전화 1600-8291

인천 중기 한중 FTA 활용 지원 ‘인차이나센터’ 구축

상의, 전문인력 배차... 중기청·세관 등 17개 기관 참여 수출업체 원산지증명·사후 검증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인천상공회의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 인천상의는 남·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을 담당하는 기존 인

천FTA활용지원센터를 유지하면서 관내 대중국 수출업체의 한중 FTA 활용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인차이나센터(In-China Center)를 추가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센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본부세관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고 원산지관리사, 관세사를 비롯해 6명의 한중 FTA 전문인력이 배치됐다.

센터는 향후 ▶관내 중소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 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 제시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한 한중 FTA 네트워크의 중심체 역할을 맡는다.

특히 한중 FTA 발효를 기점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요 급증에 대비해 관내 100여 곳의 대중국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증명서 사후 검증을 위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으로 중국 직수출 업체들 뿐만 아니라 중국 수출업체들에 납품하는 지역 협력업체도 확대해 대중국 ‘로컬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린나이코리아 등 지역 주요 수출 대기업의 협력업체 100여 개 사가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내년부터 한중 FTA로 인해 양국 간 교류 및 교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상의가 지역 소상공인·기업인에게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인차이나센터를 추가로 운영하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중국 기자 kjk@khihoilbo.co.kr

강화군 어유정향 이달 말 정비 완료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어유정향 정비사업이 이달 말에 마무리된다.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약 39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차적으로 강화군 삼산면 어유정향 정비사업을 해 왔다.

그동안 방파제(240m)와 물양장(180m), 호안(265m), 부잔교(2기), 선양장(30m) 및 어항 부지(약 2천㎡) 조성 등 어항 기본시설이 끝나 어선 100여척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해수청 측은 오는 2017년 8월 삼산연륙교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1시간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어 어항 이용성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유정향은 인근 만도리와 연평도 어장의 수산물 집산지로, 향후 수도권 지역의 수산물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배종진 기자 jongjb@khihoilbo.co.kr

“총선 출마” 인천공항 사장 또 사퇴 ‘낙하산 인사’ 탓 경쟁력 약화 우려

지역사회 “정치권, 공항산업 포기했다” 지적 일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사장의 연이은 ‘총선 출마’로 아쉬운다. 정창수 전 사장에 이어 박완수 사장 역시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다.

20일 공사에 따르면 박 사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인사혁신처는 박 사장의 편지 처리를 최종 통보해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은 지난 19일 공사와 협력사 직원들에게 보낸 ‘인천공항을 떠나며’라는 서한에서 “1년 2개월 동안 많은 것이 들었던 인천공항을 떠나게 됐다”며 “공항가족들과 약속했던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 점을 해아려 주시면 더없는 고

마음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세 차례 경남 창원시장을 지낸 박 사장은 이번 총선에서 창원 의창구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사장의 사퇴를 두고 인천에선 말이 많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박 사장이 2017년 10월까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2개월 만에 중도 사퇴했다. 앞서 정창수 전 사장(현재 한국관광공사 사장) 역시 취임 10개월 만에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선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이 정권 창출을 도운 ‘보은 인사’ 또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

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장의 잇따른 사퇴로 최첨단 항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한 인사는 “동북아 허브에서 인천공항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은 이 같은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며 “정치권에서 경제를 살린다고 말만 하고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공항산업은 포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사장 임명 절차에 공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더 좋은 분이 오실 것”이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재균 기자 ajk@khihoilbo.co.kr

인천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을 사업성과 보고회 가져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최근 인천로얄호텔에서 ‘2015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성과 보고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 내용 발표를 통해 지역 내 인력 양성사업의 결과물을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개선 사항 등은 내년도 사업에 보완해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산업맞춤 인력양성사업 관련 우수 사례로는 인천인력개발원의 휴먼테리어 과정, 봉안천막산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 성과 보고회’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공>

업, 창조직업전문학교, 최첨단 한국폴리텍대학교 인천캠퍼스 교수, 김효진 인천인력개발원 훈련 우수 사례로는 인천인력개발원의 휴먼테리어 과정, 봉안천막산

리터 등 3개 사는 일·학습병행제 우수 기업으로 뽑혀 인천시장상,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상,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김중국 기자

인천TP, 23일 미추홀타워서 지역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

인천테크노파크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미추홀타워에서 ‘인천지역 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인천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발굴 등 산업 진흥과 관련한 청사진 마련을 위해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인천 산업구조의 변화와 요인 분석(인천대 유병국 교수) ▶변이할당분석에 의한 인천 산업 경쟁력 분석(인천TP 한성호 박사) ▶인천지역 산업생태계 분석(인천발전연구원 서봉만 연구위원) 등 지역 산업과 관련한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어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산업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발전적인 지역산업정책 수립 및 연구 결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인재동 기자 airin@khihoilbo.co.kr



지방소주도 인상 대열 동참 지난달 하이마트의 소주값 인상에 이어 지방 주류업체들도 잇따라 소주값 인상에 나섰다. 대구 지역 주류회사인 금곡주, 경남 창원의 무학 등이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 주류코너에 다양한 소주가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송도 스마트 마이스 사업자 지정 논란 일단락

사업시행자 진흥원이 맡고 인천관광공사가 운영 담당

<속보>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할 ‘스마트 마이스(SMART MICE)’ 사업자 지정 논란<본보 11월 16일자 7면 보도>이 일단락됐다.

사업시행자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맡고, 인천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이후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스마트 마이스 사업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발전 특화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4년 동안 국비(50%)·시비(50%) 매칭으로 총 80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최근 진흥원과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마이스 정보와 숙박·쇼핑·관광 등을 융합하는 앱(APP)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과 진흥원은 스마트 마이스 사업을 위한 태

스크포스(TF)를 구성기로 했다. TF에는 마이스 외부 전문가와 올해 출범한 관광공사가 참여한다. 특히 앱을 구축하는 TF에 관광공사가 참여하면서 마이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인천경제청은 스마트 마이스 사업자로 ICT 업무를 맡고 있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출범한 관광공사가 사업을 맡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사업자 선정 등이 계획보다 늦어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인재균 기자 ajk@khihoilbo.co.kr

www.nonghyup.com

‘함께’의 힘은 ‘혼자’보다 강하기에...

함께의 힘은
패배를 승리로 이끌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포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듯,
농협, 그 하나의 이름으로
농업인과 국민 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의 힘-NH농협

동네방네

동두천시 청소년 봉사교육 운영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겨울 방학을 맞아 보람 있는 방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2016 청소년자원봉사 Winter School'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윈터 스쿨은 다음달 4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총 22회(800여 명)에 걸쳐 자원봉사 기본교육, 자원봉사 팀 빌딩, 글로벌 나눔 교육&나눔 물품 만들기를 진행한다. 또 금연·건강클리닉, 손·발 마사지, EM교육&홍급 만들기,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 양말인형 만들기, 응급처치 교육, 예코백-예코노트 만들기, 어르신과 함께하는 미술 활동, 장애 인식개선 교육, 청소년 금융교육, 환경친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동두천시노년복지 기자 rhyos@khihoilbo.co.kr

신중동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부천시는 21일부터 신중동역 지하 1층 7번출구 방면에 무인민원발급기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중동역은 부천세무서, 원미경찰서 등 관공서 7곳 및 대형 상업시설 2곳이 위치한 다중밀집지역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세목별과세증명, 병적증명, 교육제증명 등 10개 업무 21종의 제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설치 위치 및 이용 안내는 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평택 경로당 건물관리 사업 첫선

평택보건소가 내년 1월부터 지역 96곳의 경로당을 선정해 통합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인 '출발! 건강백세' 행복 경로당' 사업을 시작한다. 통합 건물관리교실은 주 2회 8주 과정으로 진행한다. 낙상 예방을 위한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중심으로 구강 관리, 식사 관리, 고혈압·당뇨병 관리, 우울증 예방,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 기간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접수할 예정으로 1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당은 아니다 가능하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수원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수원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평균 31%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종량제봉투 용량별 가격은 2.5L 110원, 5L 200원, 10L 400원, 20L 800원, 50L 2천 원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된 RFID(kg 당 72원), 납부필증(1.5당 50원) 등 다른 처리 방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난 2001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단, 기존에 갖고 있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김언규 기자 sims@khihoilbo.co.kr

양평군 영·유아 독서교육 마련

양평군 어린이도서관은 오는 23일부터 영·유아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내 생애 첫 책' 사업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 6~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영·유아에게 도시의 다양한 활용법을 제시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독서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해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문의:어린이도서관 ☎031-770-2758 양평=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국립박물관은 군포시로” 각계 지역 리더들 힘 모은다

유치위, 문체부 설계비 예산 확정따라 6년만에 활동 재개 김윤주 시장 공동 대표에... 조직 재정비·역량 강화 온힘

‘국립박물관 군포시 유치위원회 6차 임시총회’가 지난 18일 군포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군포지역 문화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단체, 주민 자치 조직, 교육계, 경제계, 시의회 등 관계자들을 망라해 구성된 유치위가 김윤주 시장을 비롯한 5명의 지역 리더를 공동대표로 추대해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일 시와 유치위에 따르면 군포지역에서 한국 근현대문학을 집

대성한 국립박물관 유치 움직임이 2008년 상반기부터 시작돼 그해 8월 유치위가 결성됐다. 이후 유치위는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상대로 국립박물관의 필요성과 군포지역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활동을 펼쳤다. 시는 2009년 2월 국립박물관 건립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 같은 해 5월 (사)한국행정정책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발주해 국립박물관 군포 유치를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외부 요인으로 정부

정책이 확립되지 않아 유치위 활동은 잠정 중단됐는데, 지난해 정부에서 국립박물관 건립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자 유치위도 재가동됐다는 것이 시와 유치위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3일 문체부가 2016년 예산에 국립박물관 기본 설계비 10억 원을 확정하자 유치위는 조직 재정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고문으로 참여하던 김 시장 등을 이번엔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이와 관련, 김윤주 시장은 “지역의 역량을 모두 모아 유치위 활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hihoilbo.co.kr



국립박물관 군포시 유치위원회는 18일 6차 임시총회를 갖고 김윤주 시장을 공동 대표로 추대했다.

얼음썰매 썰썰~ 어른·아이 신났네

용인 시청광장 동절기 운영 개장 첫날 300여 명 몰려 대야밀기·팽이치기 인기

지난 19일 오전 11시 얼음썰매장으로 변신한 용인시청 광장. 1천500㎡ 규모의 얼음썰매장은 300여 명의 어린이가 썰매를 타고 팽이를 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한쪽에서는 엄마가 썰매를 끌어 주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누가 빨리 가나 속도 경쟁도 펼치고 있다. 썰매장 한쪽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이색 이벤트도 열렸다. 가족단위로 대야를 이용한 대야 밀기 대회를 비롯해 썰매 타기 대회, 얼음 팽이치기 대회가 열려 이 긴 팀에게는 경품이 주어졌다. 특히 기흥구체육회는 개장식에 맞춰 용인시장애인복지관 어린이 15명을 초대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썰매를 지치는 이벤트도 펼쳐 훈훈한 광경을 연출했다. 용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필리핀·베트남 국적의 다문화가족 26명을 초대해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정찬민 시장과 신현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용인



정찬민 용인시장이자 시청 광장에서 한 어린이의 썰매를 끌어주고 있다.

시 체육발전위원회 위원 등 많은 내빈이 자리를 빛냈다. 썰매장에는 이날 하루에만 어린이 1천500명을 포함해 3천여 명의 시민이 찾아 휴일을 만끽했다. 썰매장 운영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4시다. 21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썰매장 정비를 위해 휴장한다. 용인=우승우 기자 bison88@khihoilbo.co.kr

도내 지자체 3곳 내년도 예산안 확정 고양시 2.7% 증가... 1조 5128억 <전년대비>

엄격한 행정감사도 주목

고양시의회가 내년도 고양시 총예산 1조5천128억 원을 확정하고 제198회 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강도 높게 실시해 총 258건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2016년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수정안 중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등 일반회계 83개 사업 33억2천823만 원, 특별회계 1개 사업 2천500만 원이 감액된 가운데 시의 새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2천132억 원, 특별회계 3천26억 원 등 총 1조5천128억 원(전년 대비 2.7% 증가)으로 확정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시흥시, 총 1조4458억 원 의결

예결위, 추경 원안대로 의결

시흥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29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5년도 모든 회기 일정을 소화했다. 11월 20일부터 2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 및 기타안건 등을 심사, 처리했다. 특히 윤태학 의장은 제5차 본회의에서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원안을

또한 48개 기관 및 부서에서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58건에 대해 시정과 개선 처리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화 촉구 결의안 ▶고양시 장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2건의 각종 조례안·규칙안, 동의안,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직권상정된 데 이어 25억여 원 삭감된 1조4천458억여 원의 수정동의안을 재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집행 시기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흥=이윤철 기자 oclee@khihoilbo.co.kr

용인시 도시 인프라 구축 온힘

1조8495억... 상하수도 2배 ↑

용인시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1조8천495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1조6천575억여 원보다 11.58% 증가한 것이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03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천381억 원(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3천112억 원(20.6%) ▶일반 공공행정 1천382억 원(9.15%) ▶환경보호 1천62억 원(7.04%) ▶국도 및 지역 개발 1천12억 원(6.7%) ▶문화 및 관광 923억 원(6.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항목별 증가율을 보면 상하수도·수질분야가 전년 160억 원에

서 486억 원으로 2배(204%)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으로 ▶도로 71.55% ▶문화관광 67.84% ▶산업·중소기업 53.0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이는 인구 100만 대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예산을 늘려 편성했기 때문이다.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민선 6기 내 지방채 전액 상환을 목표로 2015년 총 2천201억 원(경전철 지방채 1천972억 원 포함)의 채무를 상환했고, 나머지 1천302억 원 중 2016년에 667억 원을 편성해 2017년 채무 제로화의 기초를 마련하리 기대했다. 용인=우승우 기자 bison88@khihoilbo.co.kr

기자의 눈 조병국



사회2부

이데올로기적 폐해를 끊어라

실제로 예결위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 다툼이 늘 존재했던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 관련 역사적인 예산을 진보진영 편에서 '역사화해의 첫 장'으로 열며 아직 법적 지원 근거가 전혀 없는 7억 원 상당의 보수진영 태극단 추모사업 예산의 불법 편성이라 비판까지 하면서 이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 연합세력은 승복하지 않고 1조5천억 원이 넘는 고양시 새해예산 중 오로지 금정굴 관련 예산 딱 한 건만 삭감한 원 포인트 표적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이를 수적 우세로 밀어붙였고, 결국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소속 야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사태를 빚었다. 한국전쟁 당시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의 유족들이 이 유해한 이데올로기적 폐해를 일소하고 102만 시민에게 새로운 화합의 장을 펼쳐 보아 주길 바란다.

겨울밤 일산호수공원 '꽃빛 물결' 고양시 내년 1월 10일까지 LED 트리 조형물 등 전시



지난 주말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환상적인 빛의 하모니 '2015 호수겨울꽃빛축제'가 화려하게 개막했다. <사진> 특히 겨울 꽃빛 축제장은 역동적으로 춤추는 빛의 파노라마로 가득 채워 호수공원 내 메타세쿼이아 길을 불빛 게이트로 꾸며 로맨틱한 꽃빛 터널을 선보인 가운데 고양꽃전시관 광장, 주재광장, 호수 수변로 일대가 모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잔치를 일구며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LED 장미 미로정원으로 둘러싸인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빛 조형물은 3D 큐브 일루미네이션쇼가 더해져 더욱 아름답게 빛났고, 광장을 감싼 파고라는 은

하수 LED로 물결처럼 연신 넘실거렸다. '호수겨울꽃빛축제'는 내년 1월 10일까지 27개 팀이 참가하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축하쇼로 즐거움을 더한다. 점등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입장료는 무료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성남시, 건물 외벽 불연 마감재 의무화

화재 취약한 재료로 설계하면 건축허가 못받아 개정 법률안 이달 16일자 접수분부터 적용 실시

성남시가 불연 마감재 의무화를 시행한다. 시는 건물을 지을 때 외벽에 불연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공백 기간 없이 전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 10월 7일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분당구 수내동 서영빌딩 화재 사건을 계기로 시는 이 같은 자체 방침을 정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이달 16일자 건축허가 접수분부터 적용에 들

어갔다. 건축 심의 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에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화재 시 외벽을 통해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를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시공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드라이비트(스티로폼), 복합 패널 등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건물 외벽을 설계하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시는 개정 법률안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 전체 면적 2천㎡ 미만, 6층 미만, 높이 22㎡ 미만의 소규모 건물도 이 규정을 준용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도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 탈출구와 환기통을 설계하도록 행정지도한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안산시가 18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연계한 도시환경 공동 연구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안산시 제공>

꽃우물 되살리기 등 비전 공유

안산시-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공동 연구 보고회

안산시는 지난 18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오픈스페이스 계획과 설계' 수업과 연계한 도시환경 공동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제종길 시장을 비

롯해 국·과장 등 관계 공무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성종상 교수와 대학원생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연구진들은 세월호 피해지역인 희망마을, 화정동 꽃우물마을, 안산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 원곡동 다문화특구 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발표회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은 연구과제로 선정한 ▶커뮤니티 회복을 통한 말라버린 꽃우물 되살리기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일상적 생활환경 개선 ▶산업단지 내 환경기반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오픈스페이스 역할 ▶도시기반시설과 공공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증진계획 등 4개 부문과 관련해 학술적 전문가의 입장에서 비전을 수립해

제시했으며, 경쟁력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앞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제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환경 정책과 결합시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종길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전문지식을 갖춘 교육 및 연구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래지향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hihoilbo.co.kr

화성시, 셋째 아이 중·고교 입학때 교복비 지원

화성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 고자 2016년부터 다자녀가정의 셋째 아이부터 중·고등학교 입학 시 30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복비 지원 대상은 다자녀가정의 셋째 아이 이상인 중·고등학교 입학생으로, 2015년 1월 1일 이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입학 연도 3월 1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광훈 여성보육과장은 "앞으로도 출산 장려와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교복비 지원 외에도 다자녀 가정 만 1세의 셋째 아이부터 코리요 미아 방지 목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티타늄 소재의 목걸이 시 대표 캐릭터 '코리요'와 부모의 연락처가 기재된 미아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조홍철 기자 hbj@kh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왕숙천 수변마당 조감도.

남양주시-경기도시공 협업행정 시너지 붕괴 걱정없는 슈퍼제방 왕숙천 범람위기 없애다

남양주시가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왕의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경기도시공사의 다산신도시 개발과 공생하는 행정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228억4천여만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진접읍 내곡리 임송캠프장~수석동 한강 합류부 10km가량을 대상으로 옛 하도 복원과 콘크리트 시설물 철거 등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사업비는 국비 137억4000만 원과 기금 63억9천500만 원, 도비와 시비 13억7천만 원 등으로 각각 분담했다.

남양주시가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왕의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경기도시공사의 다산신도시 개발과 공생하는 행정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228억4천여만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진접읍 내곡리 임송캠프장~수석동 한강 합류부 10km가량을 대상으로 옛 하도 복원과 콘크리트 시설물 철거 등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사업비는 국비 137억4000만 원과 기금 63억9천500만 원, 도비와 시비 13억7천만 원 등으로 각각 분담했다.

시는 왕숙천과 인접한 다산신도시 진접지구 구간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와 상시 소통으로 협업 행정의 시너지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존 제방 건립 방식에서 벗어나 홍수 시 붕괴 위험이 없는 강력한 '슈퍼제방' 개념을 도시공사에 제시해 안전성을 높였다. 슈퍼제방은 제방의 시가지 측에 성토해 제방의 폭을 높이는 30배 정도도 넓히는

방식이다. 홍수가 발생할 경우 물이 넘쳐도 제방이 붕괴되지 않아 시가지가 지켜내는 데 유리하고, 제방 윗부분을 이용할 수 있어 수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최신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도시공사가 직접 시공할 경우 15억 원이 필요한 사업을 시 생태하천과가 직접 주관, 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7억5천만 원을 절감도 록 했다. 이 같은 시와 경기도시공사의 협업은 예산 절감, 생태복원과 연계한 안전한 하천 조성, 개발까지 향상 등 양측이 윈윈(Win-Win)하는 기본 좋은 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왕숙천과 연계한 이 공간이 시민에게 테마가 있는 환경친화적 생태공간으로, 미래형 하천 모델로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hihoilbo.co.kr

광주시 고산3지구 관리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

광주시는 토지이용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산3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한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주민설명회, 관련 부서(기관) 협의, 주민 열람,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21일 '고산3지구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변

경'을 고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연립과 아파트 용지 등 세분화됐던 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4만5천761㎡)만 그대로 유지한 채 공동개발할 경우 기반시설 15% 제공을 비롯한 용적률, 층고 등 개발조건만 충족되면 자율적인 개별 주택과 공동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hihoilbo.co.kr

동네방네

의왕 자전거 활성화 정책 '우수'

의왕시가 3년 연속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정책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정책평가'에서 자전거도로 유지 및 관리,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시민 자전거교육 및 자전거보통, 자전거 통학시범학교 등 각종 자전거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올해 국비 포함 총 5억 원을 투자해 초화류 및 수목 식재, 쉼터 조성 등 산길길 경관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해 시민 건강 및 여가복지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점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hihoilbo.co.kr

여주시 의료급여사업 표창 수상

여주시는 의료급여사업 발전과 내실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기도에서 최근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시는 2015년 의료이용 증감률,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실적, 의료급여금 재정이여도 등 6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개선해 의료급여사업 내실화와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hihoilbo.co.kr

안양시 어린이급식관리 우수상

안양시가 위탁운영하는 안양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5년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안양대학교 내에 지난 2013년 문을 연 안양시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197곳을 대상으로 안전한 급식 제공과 건강급식지킴이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30종의 급식 관련 콘텐츠 개발, 영·유아의 짠맛에 대한 적정 미각 형성, 신체 계측을 위한 '맛츄형 ABCD 프로젝트', 해피레터 등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다. 안양=이정택 기자 jitlee6151@khihoilbo.co.kr

인생 2막!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유)와이즈에너지월드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확실하고 안정된 소득! 노후를 준비하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근거한 태양광 RPS발전사업은 건물 위, 대지에 자신에 자금규모에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후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 발전소에 판매하는 안정된 사업입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하면 전기요금 부담 해결됩니다.

- 누진세로 전기요금이 걱정되는 주택
- 공동주택의 공동전기요금 절약
- 신축주택의 태양광설치로 가치상승

태양광발전설비 · 전기공사 · 수요자원등록 전문

태양광발전사업 문의 ☎1566-1336

교육칼럼 **김철**



대한결핵협회인천지부장
전 인천시교육위 의장

자녀 학력을 학부모가 알아서 해야...?

교육 현장에 있었기에 만나는 아파트 단지 몇몇 학부모들이 자연스레 다가와 자녀교육에 대해 이런저런 자문 겸 자녀의 학교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이웃으로 지내는 것도 싫지 않고, 또 함께 자녀교육에 대해 젊은 학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여간 고맙지 않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년이 올라가고 상급학교를 달리하면서 자녀의 진학·진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생각보다 심각하게 사교육에 관하여 묻기도 한다. 특히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는 개인과의 교습소에 수시로 드나드는 학생들을 보면 더욱 부모로서의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할 것이다. 대놓고 사교육을 권하기는 쉽지 않기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인 학교교육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렇다고 사교육을 멀리한 것도 아니기에 담임선생님과 상담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길 권해 보기도 한다.

모든 학생이 사교육에 다닌다고 성적이 오르면 전국에 공부 못하는 학생이 어디있으면 처음부터 공부하고 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학생에게 고액 과외를 시켜줘도 성적이 늘 그 지경인 경우도 있다. 사실 많은 부모는 알면서도 자녀를 사교육에 보낸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믿음을 주면 좋으련만...

교육감 선거가 끝나면 미래에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학교 현장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다가가는 지금의 자녀에게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만을 속삭인다. 그럼에도 사실은 많은 학부모가 사교육이 학교성적에서 커다란 영향이 없지만, 이를 알면서도 사교육에 자녀를 보내고 일부 고액과외를 시킨다. 성격이 안 오르면 자녀의 학습 방법이나 자녀의 특기·적성을 알아보기 이전에 자녀를 다그치

면서 사교육 기관이나 과외 선생님을 바꾼다. 그러면서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도 담임선생님이 확실하게 학생 개별 학습 상황을 환하게 알고, 담임반 학생과 함께 늦저녁까지 공부하던 때에는 담임선생님 모르게 시간을 빼내 사교육 기관에 맡겼으나 이제 학생들 학력 향상에 신경쓰지 않는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면서는 학부모들도 당연하게 사교육기관에 자녀를 맡기고 또한 학생들 사이에 사교육기관 출입경쟁을 하고 있다.

아침 늦게 9시 등교 강행과 시험안보기 그리고 학생 신분을 벗어난 두발 규제 완화나 머리염색에 어울린 화장은 더욱 더 학교가 학생들이 오래 머물러야 할 공부하는 곳이 아니기에, 끼리끼리 사교육기관에 몰려다니고, 무리지어 자신들끼리 '왕따'를 하고 어른 흉내를 내면서 눈치 보지 않고 뒷골목 휴먼과 자연스러운 남녀 학생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어두워지면 또 다른 밤 세계를 만들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진보

지방교육청과 연일 쏟아내는 평등 교육 행정을 원망한다.

공교육을 벗어난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함께하는 공교육 계도를 벗어난 교육에서 배운 개인주의는 앞으로 한 아이를 고집하고 돌쩌우 셋째 낳기를 포기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사교육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사교육은 학력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불안정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교육에 이끌려가는 현 학교교육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 또한, 학생의 학력 향상이 있을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이 더불어 교실에서 많은 시간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대비준비학년 학생이 똑같이 늦은 9시에 등교하고, 모든 학생이 일찍 학교에서 나가야 교문을 굳게 닫아걸어야 책임지는 학생 생활지도도를 벗어나고 안심하는 그릇된 교육행정에서 벗어나야 사교육이 학교교육의 보완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재만

섬망

최근 지인에게서 요즘 말하는 '웃픈'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를 건네 들었다.

직장 동료가 내시경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이 동료는 일전에도 내시경을 받다가 마취에서 켜 짝이 있어 의사가 미리 이야기를 털어놨다. 그리고는 조금 세계(?) 마취를 해 달라 부탁했고 의사는 '알았다'며 이내 내시경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동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마취에서 깨 괴격한 행동을 보였고, 이 때문에 함께 간 다른 동료 3~4명이 달려 들어 제압을 한 뒤에야 내시경을 마칠 수 있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황

자제가 엉뚱하기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한편으로는 슬플 수 밖에 없는 일화다.

이러한 증상은 의학 용어로 '섬망'이라 일컫는다. 일시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현실을 구별치 못하거나 환각에 빠져 의사 혹은 간호사를 공격 대상으로 여기고 자신의 몸에 꽃힌 주사바늘을 뽑기도 한다.

어느 나이대여나 나타날 수 있으나 나이가 많을 수록 흔하며, 큰 수술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20% 정도가 겪는다는 견해도 있다. 큰 수술이 아니어도 수면 내시경을 받고 정신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섬망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마취약 등으로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짐작할 뿐이다. 따라서 예방법도 없다. 하지만 섬망 자체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과격한 행동 속에 환자 본인의 환부를 악화시킬 수 있어 보호자 등의 보살핌이 중요하다.

섬망은 병원에서만 종종 목격된다고 여겼다. 섬망이라는 단어조차 일반인들은 생소하다고 할 만큼 그저 병원 내의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울 한 해, 아니 지난 몇년간 섬망을 겪고 있는 듯 하다. 기간을 한정 지은 이유는 섬망의 '일시적' 특성에 따른 바람으로, 앞으로 몇년 더 이 증상을 겪어야 할지는 모르겠다. 더 나아가 '인지능력이 떨어져 현실을 구별치 못하거나 환각에 빠져' 있더라도 그것이 섬망이라면 되레 희망적이다. 예방법은 없지만 '보호자 등의 보살핌'을 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짓밟는 일은 더 이상 그만 했으면 좋겠다.

<박노훈 기자>

광복 70년 그리고 2050년 (完)

김두환의 미래 엿보기



인천대 객원교수
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1945년 일제로의 해방, 그 후 70년인 지난 2015년. 새로운 아시아 시대가 될 2050년. 광복 70년 동안 발생한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이 현재인 2015년을 만들었고, 향후 35년 동안 발생할 수많은 사건들이 미래의 2050년을 만들 것이다. 역사(歷史)란 지난 이야기이다. 역사의 주요 사건들은 마치 패종시계의 시침처럼 인간들의 시선을 끌지만, 그 주요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톱니바퀴 같은 사소한 사건들이 겹쳐져야만 한다. 그러나 역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마치 시계추를 일정하게 진동하게 하는 중력처럼,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처럼 급변하는 세상에 살아 갈수록, 변하는 가치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빨리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시계추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시계추의 흔들림만 주목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혼돈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추의 움직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추를 움직이게 하는 추동력을 주목해야 하며, 추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추의 운동패턴을 파악해야 한다. 추는 항상 균형점을 향해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눈에 항상 균형점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래연구가로서 이러한 원리의 이해가 미래예측에 있어 가장 주요한 덕목중 하나라고 본다. 그러나 인류사는 2차원적 평면 추진동이 아니고, 3차원적 나선형 추진동이다. 운동의 패턴은 같으나, 절대로 같은 궤적을 따르지 않는다.

거대한 역사의 추는 신아시아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1839년 제1차 중영전쟁인 아편전쟁은 아시아 흑역사의 시작이었다. 특히 동아시아는 세계정세 변화의 최전방에 있었다. 2050년 동아시아는 신경제연합체를 구성하여 세계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연합에는 중국의 중심이 될 것이다. 중국은 G2 체제를 유지하나, 미국보다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는 통일 한국을 이룩한 한국의 역할이 주요할 것이며, 중국과는 협력관계까지 갈 것으로 본다. 통일 한국은 지리학적 중요성을 기반으로 미·중간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남북한 인구 8천만 명, 이민자 1천만 명 등 일억 명이 가까운 인구를 갖게 될 것이며, GDP 기반으로 G7 국가로 성장할 것이다. 일본의 근현대 역사는 한마디로 '강대국 편에 서서 강대국 되기'이다. 일본은 교활한 만큼 영리한 나라이다.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과 견줄만 정도가 되면, 일본은 반드시 중국 편에, 아니 아시아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일본은 섬나라 기질이 있어, 철저하게 국가 실리 위주의 국정 운영을 할 것이며, 중국은 대국 기질이 있어, 포용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중·일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올바른 역사관과 탁월한 미래예측 능력이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에 머무르는 역사(歷史)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통사(通史)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조적 한국 발전의 성장 엔진은 인천이다.

기호일보 kihooilbo.co.kr

회장·발행인 서강훈 / 편집·인쇄인 한창원 / 편집국장 전기식 / 경기본사 편집국장 정준영			
인천본사 032-761-0001 © 032-761-0015 경기본사 031-898-6767-8 © 031-898-6769 경기북부본사 031-872-2990 © 031-872-2991		인천시 남구 인종로5 정산빌딩 9층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29 연합뉴스 빌딩 4층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9번길 관건축 3층	
구독신청 032-761-0007 판매국 032-761-0013 광고문의 032-761-0002	편집국 팩스 032-761-0011 정제부 032-761-0003 경제부 032-761-0004 사회부 032-761-0005 문화·체육부 032-761-0005	편집부 032-761-0006 디지털뉴스부 032-761-0009 사업국 032-761-0008 출판국 032-761-0008 총무국 032-761-0007	동두천 031-865-2557 오산 010-9274-3486 신갈 031-285-2283 서울 02-313-5962 처인 031-333-1112 의정부 031-845-4200 수원 011-242-8004 이천 031-634-3312 시흥 010-3218-8724 파주 031-941-4513 평택 031-653-3132 포천 031-535-5806 안성 031-675-2615 양주 031-845-4200 양평 010-8916-2106 여주 031-885-3627 화성 010-9274-3466 연천 031-834-130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기호지방(畿湖地方)이란?

한반도의 중심지역을 일컫는 지방명이다. 서 울을 중심으로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영서지역,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북부지역, 충청북도 남부지역이 포함된다. 기호지방은 흔히 경기도와 충청도를 합해 불렀는데, 경기도의 '기(畿)'자와 충청도에 있는 의림호의 '호(湖)'자에서 비롯됐다. 삼한 시대에는 마한,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산주(漢山州)·한주(漢州)·한양(漢陽)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양주(楊州)라 하다가 성종의 10도 편성으로 경기 일대를 관내도(關內道), 공주(公州) 중심의 충청남·북도 일대를 하남도(河南道)라 했으며, 1058년(문종 12)에 '경기'라는 행정구역이 창설됐다. 특히 조선시대의 도읍지가 한양으로 옮겨지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중심을 이루는 수도권으로 성장해 왔다.

왕조바다마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 왕조바다마을은 항상 위생적이고 신선한 활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계절의 맛! 계절음식 전문점
 활어·선어·산낙지 등 바다의 모든 것

봄 : 주꾸미, 갑오징어, 송어 등
 여름 : 민어회·탕, 병어, 뽕망이 등
 가을 : 전어, 낙지, 도루묵 등
 겨울 : 광어, 우럭, 도미, 농어
 세꼬시, 빙어 등 활어 일철
 각종 : 생선조림, 매운탕 등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 628-19 TEL.032)884-4415

승도 맛집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OPEN!

파티 오브 그레이스 party of grace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와 포근한 분위기를 즐기세요!

- 돈가스 & 파스타 전문 레스토랑
-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 밸런스를 맞춰 건강까지 더해주는 샐러드와 환우를 사용한 스테이크로 특별한 음식 제공
- 아이 결혼식 및 돌/백일 등 소규모 가족모임장소로 제격인 쾌적한 공간
- 넓은 주차장과 승도의 아기가 펼쳐져 있는 전망 좋은 곳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698-2 (동춘동 아담대로 825-27)
 ☎ 032.859.7878

윤스골프클럽 | 스크린 & 실내연습장

아직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시각이 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에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3개월 150,000
 6개월 300,000+1개월
 12개월 500,000+1개월

스크린
 조조할인
 평일18홀기준

오전 10시~오후 2시 입장고객
 알바트로스3 10,000
 LIVE GOLF 12,000

예약 문의 032-764-3888
 NH농협은행 신포지점 지하 1층

월요프리즘 이국성



변호사/기호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장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하여 2003.3.11.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었다. 18명의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임기 9년의 재판소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초대 재판소장에는 현재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송상현 박사가 선임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법 제 7조(반인도적 범죄)에서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으로서 주민의 살인, 고문, 강제이주, 자유권 박탈, 노예화 등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4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2012.4.26. 에라이베리아 전직 대통령 찰스 테일러에 대하여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 선고는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독일 나치 전범들에 대하여 뉘른베르크 재판을 한 이후 최초로 전직 원수를 형사 처벌한 예라고 한다. 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2012.3.14. 콩고

국제형사재판소와 북한인권

민주공화국 반군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에게 대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도 광범위한 민간인에 대한 중대 범죄자 개인을 유엔 차원에서 처벌한 근거이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 위원회에서는 2014.2.17.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주민의 인권 탄압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2015.12.17. 유엔 총회에서는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자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들이 정치적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침탈당한 것으로 상징적인 사례는 함경북도 회령시에 있다는 22호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6개 정치범 수용소에 대략 15만에서 18만 명의 주민들이 정치적 이유로 강제 구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엔 가입국가들의 대부분이 북한에 대하여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국내외 많은 인권단체들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

고 있다. 미국은 2004.7.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여 하원을 통과하고 2004.9. 상원을 통과한 후 2004.10.18. 당시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는데, 주된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 고양과 인도적 지원, 탈북자 지원, 북한 인권대사 임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당시 17대 국회에 북한 인권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야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하여 제정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18대를 거쳐 19대 현재의 국회에도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임기 만료로 다시 자동폐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려 11년을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한 상태이고 여야의 대립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5.12.11. 서울 정동 회관에서 초대 국제형사 재판소장을 역임하신 송상현 박사님으로부터 국제형사 재판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역할들을 상세히 전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지난 2015.12.17.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주민 탄압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 재판소 회부 권고에 대한 의결에 이른 인권운동가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봉사활동 설명도 소상히 들을 수 있었다.

인권이라는 가치는 국가보다 더 상위의 최고 근본 가치이다. 다만, 인권

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각국의 처한 상황이나 개인의 신념의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모습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치 정략에 인권을 이용하는 것은 또다른 인권침해일 수 있다.

2015년에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혼란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분단국가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향후 통일에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현 상태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신장되고 정치적 자유가 확보되어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착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된다고 한다.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의 민주주의도 한층 발전하고 성숙하여야 하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다른 그 어느 국가보다 더 철저한 성찰과 참여를 하는 것이다.

수많은 북한 주민의 고통과 탈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구체적인 보호와 지원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의 책임있는 자격과 품격은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모든 국민과 정치인들의 자각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바이다.

자치플라자 전홍식



동두천시 기획팀장

지난 9일 파주 출판도시에서 '도-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토론회'가 개최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도의회 의장, 31개 시장·군수를 비롯한 도와 도의회의 주요 수뇌부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는 도와 시·군의 정책 연정(聯政)을 위해 일차 리창출과 인사교류 등 6개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쟁의 대상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사회통합 부지사로 임명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 중 500억 원을 의회에서 자율편성토록 하였다.

연정을 위해 집권여당이 야당에게 권력을 나누어 준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새누리당 53명, 새정치민주연합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두천, 그리고 대한민국의 만아들 경기도

이런 맥락 속에서 남경필 도지사의 연정은 갈등과 대결의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 여야가 소통하고 상생 협력하여 결국 도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난 4월 제1차 상생협력토론회 결과 '경기도는 하나다'라는 인식을 함께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메르스를 잘 극복했다"며 "답답한 중앙 정치를 타기보다 도와 31개 시군,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 협력하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큰아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필자가 물답고 있는 동두천시는 시면적의 42%를 미2사단이 사용하고 있다. 미2사단은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지난 8월 발생한 북한의 연천 포격을 시작으로 6일 동안 피를 흘리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의 위력에 대한 각 방

사들의 보도를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동두천은 지난 64년간 대한민국의 수호 도시로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으로 국가 안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면서 형성된 미군 문화와 기지촌이라는 별칭 속에서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여 재정자립도가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국민은 국가를 부모로 여긴다. 자식이 병들고 아프면 부모 가슴은 찢어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해 병 들고 허약해진 자식이 있다면 이제 먹고 살 만해진 부모가 그 자식을 보살피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 2003년 7월부터 12년 동안 계속된 동두천시민들의 생존을 위한 대정부 호소는 형평성과 선례 논리에 밀려 공허한 메아

리로 사라질 뿐이었다.

다행히 지난 6월 정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약속 하였다. 그러나 동두천시민들은 선듯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불신의 상처가 너무 크고 지금 당장 산업단지가 착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분양가를 낮추어야 하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자립도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두천시는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번 상생협력토론회에서 남경필 도지사가 밝혔듯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큰아들 역할을 하여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중 일부라도 도비로 지원해서 중앙정부에 돈을 보이고 10만 동두천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바란

사설 소모적 정쟁으로 경제 언제 살리나

세계경제 침체 여파로 인한 경기위축과 수출 악화로 인해 조선, 중공업, 전자,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서 인력감축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를 들어 네 번째 실시한 희망퇴직에 사무직 전체 직원 3천41명 중 702명이 신청했다. 회사 측은 이달 말로 퇴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 한다. 이번 희망퇴직 과정에서 20대 직원과 입사 1~2년차 직원까지 무리하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회적 비판이 급격히 확산하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지시로 1~2년차 희망퇴직 신청은 철회했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퇴직 의사를 밝혀 회사를 떠날 것으로 전해져 정말 힘겹게 취업문을 뚫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이 돼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파다. 심지어 상황이 좋은 흑자기업까지 내년 위기에 대비해서 감원에 나서면서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천명이 넘는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내년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400개 기업을 상대로 내년도 경영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보다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13%에 그쳤고 50% 이

상 기업이 현재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중이거나 앞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한다. 신규 고용은 줄고 인력감축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심각한 고용절벽은 현실화 될 약 40만 명의 취업애로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여력이 감소하고 시장은 위축돼 고용과 투자는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제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나면 되돌리는 것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국회에는 필수 민생경제법안들이 정쟁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 구조조정은 더욱 본격화 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대기업들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상황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일할 기회조차 찾기 어려운 취업준비생들의 좌절과 눈물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쟁의 늪에 빠진 여야 정치권의 뼈를 깎는 각성을 촉구한다.

'규제프리존' 규제하며 개혁 운운해서야

규제철폐와 금융·세제지원의 혜택을 받게 될 27개 전략산업을 지방의 14개 시도에만 균등하게 27개씩(세종시 1) 배분하겠다는 소위 '규제프리존'이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방인론은 경기 북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했고, 경인지역은 등도 보도 못한 여차별 정책에 할 말을 잃었다.

금년 정책의 명백한 오류는 실제로 투자할 기업들의 의견 수렴이 생략됐고, 경기·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등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졌다는 데 있다. 대표적 희생양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다. 4월에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산업부의 모 기획 단장은 '규제완화시범지구 같은 추상적 캐치프레이즈 말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정산업을 제시하라'며 IFEZ를 평가절하했다. '울'의 입장인 인천경제청은 관료의 말 한마디에 '바이오 및 복합리조트'를 특화산업으로 지정, 추진하게 됐고 그 결과 송도에는 25개 바이오 관련 기업·기관 중심의 '바이오 프론티어'가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이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이다.

도단체 재정자립도 57.5%의 인천이 80%

가 넘는 서울과 비교해서 어떤 동질성을 지녔는지, 그리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슷한 여건의 부산·대구보다 차별을 받는 게 과연 이치에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든 게 아니다. 기존제도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경제특구다. 모든 조건을 실험해야 할 경제 파릴렛인 까닭에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규제프리존이어야 하고, 태생 자체가 특혜를 전제로 태어났기에 다른 지역과의 차별 운운도 어불성설이다.

본보 보도에 의하면 IFEZ는 지난 9월 말까지 77개의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며, 총 67억8천3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을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해는 국고보조 2.1%라는 열악한 환경과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전국 8개 FEZ 유치실적의 94%를 IFEZ가 차지하는 기염도 토했다. 이제는 본래의 개념대로 성공해보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 이번처럼 총선용 '선심성 지방우대 정책'들을 두루뭉술리하게 규제철폐로 포장하는 것보다 백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Advertisement for Nareang (주) (나래이엔지) featuring a cityscape background. Text includes: '남동국가산업단지 소방시설관리업 1호 등록업체!', '070.7452.7723', and a list of services such as '소방시설안전관리(대행)', '소방시설점검(종합, 작동)', and '소방시설유지보수'.

드라마 풍작 SBS '슈퍼맨' 활약 KBS 새 예능 대박 MBC 연말 시상식 즐겁다

옹팔이 '주원', 애인있어요 '김현주' 등 SBS연기대상 유력 후보
MBC 예능 중흥무진 '김구라', 무한도전 간판 '유재석' 왕좌 각축

'나뉘 주기',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도 있지만, 방송사 연말 시상식은 여전히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 있는 행사다.

오는 26일 밤 서울 여의도 KBS신관에서 열리는 KBS연예대상 시상식 첫 테이프를 끊는다. 29일 MBC방송연예대상, 30일 SBS연예대상과 MBC연기대상, 31일 KBS연기대상과 SBS연기대상이 잇따라 열린다.

▶주원·황정음·지성·김수현...연기신(神)은 누구=올해 드라마에서 풍작을 거둔 SBS는 연기대상을 놓고 행북한 고민에 빠졌다. 대상 후보는 '옹팔이' 주원이 첫손에 꼽힌다. 그는 화타도 울고 갈 의술로 주중 미니시리즈 시청률 20% 돌파를 이뤘다. 올 해 유일무이한 기록을 만들었다. '애인 있어요'에서 1인 4역을 자연스럽게 소화한 김현주가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짜장면을 흡입하는 모습만

로도 긴장감을 안겨 줬던 조재현('편지')과 열혈 경찰 김희애('미세스김'), 대학사극 '육룡이 나르샤'를 떠받치는 두 축 김명민과 유아인도 유력 후보다.

MBC에서는 올해 최고 탤런트(한국갤럽 조사)로 선정된 '그녀' 황정음의 수상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킬미 힐미'로 시동을 건 황정음은 '그녀는 예뻐다'로 최고 전성기를 맞았다.

두 방송사보다는 흥행 성적이 저조했던 KBS에서는 '프로듀사'의 김수현과 '착하지 않은 여자들'의 김혜자·채시라 3파전이 예상된다.

▶유재석 아성에 도전한 김구라...김병만도 강세=연예대상에서 가장 눈길이 쏠리는 곳은 MBC다. '복면가왕'과 '마이 리틀 텔레비전', '능력자들'을 안착 시킨 김구라의 활약이 돋보인다. 물론 MBC 예능의 간판 '무한도전'의 중심이



자 4년 연속 올해 최고 예능인(한국갤럽 조사)에 오른 유재석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김구라가 방송생활 최초로 대상 트로피를 품에 안을지, 유재석이 6번째 MBC 연예대상을 거머쥘지는 29일 밤 판가름난다.

난 4월 시작한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도 안정감 있게 이끌고 있다. 올해에만 인도차이나, 압, 브루나이, 니카라과, 사모아('정글의 법칙')를 누빈 데 이어 소림사('죽먹 쥐고 소림사')까지 진출한 김병만의 수상 가능성이 크다. KBS예능에서는 효자 '1박2일'과 '슈퍼맨이 돌아왔다' 팀의 수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문의 OBS(032-670-5130) KBS(02-781-1800) MBC(02-780-0015) SBS(02-2113-3190) EBS(02-526-200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I	KBS2	MBC	SBS	OBS	EBS
5	5:00 KBS 뉴스 5:10 KBS 결재 다큐멘터리 6:00 KBS 뉴스 광장 7:50 인간극장	6:00 2TV 아침	5:00 MBC 뉴스 5:10 오늘 플러스 6: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7: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5:00 SBS 뉴스 5:10 SBS 특선 다큐멘터리 6:00 노닐어이드 <-1-3부->	6:00 TV 포럼 <경인의 아침> 6:50 OBS 전격 인터뷰 7:00 특집한 연예뉴스 7:40 OBS 뉴스	5:00 EBS 생활 영예 40 요리비전 6:10 EBS 인문학 특강 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30 뽀롱뽀롱 뽀로로 45 로보카 폴리
8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라> 9:40 여유만만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 생활뉴스 9:45 기본 좋은 날	8: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머리> 9:10 좋은 아침	8:10 TV 주치의 8:40 로드 다큐 <만남> 9:40 OBS 뉴스	8:00 싱동영 유치원 45 코코코 다코 9:00 크래머의 창의력 광장 40 부모
10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 네트워크 특선 11:55 난쟁이 우리말	10:40 지구촌 뉴스 11:00 월화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11:00 그린 실버 고갱이 좋다	10:1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1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11:50 SBS 뉴스	10:00 OBS 일요드라마 <만아> 11:10 Music & Movie 11:40 OBS 뉴스 <경인투데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20 세계테마기행
12	12:00 KBS 뉴스 1:00 KBS 명품역사관 역사저널 그날 1:50 별별가족 1:55 시청자 클럽 우리사는 세상	1:00 시간을 달리는 TV 12:20 통일 전망대 1: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12:00 MBC 정오 뉴스 12:20 통일 전망대 1: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12:45 식사하셨어요?	12:00 연예매거진 1:00 즐겨찾기 영화일주	12:00 EBS 정오 뉴스 10 EBS 스페이스 공감1 1:05 지식채널e 40 출거운 수학 EBSMATH 50 오스카의 오아시스
2	2: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3:00 한국인의 밥상 3:55 트트생활제조	2:00 KBS 뉴스타임 2: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화)2.0 3:05 후드스 - 잃어버린 숲 3:30 자공공부착상위키	2:00 키즈 사이언스5 3:00 MBC 뉴스 3:10 똑똑! 키즈 스퀴 3:55 특집 예니메이션 <파워 배틀 와치키>	2: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3:00 3시, 뉴스 브리핑	2:00 구르기 TV 2:55 행복 부동산 연구소 3:40 인생열전 <살 나니 세상>	2:00 초동 1년 겨울방학생활 2 초동 5년 겨울방학생활 4 초동 3년 겨울방학생활 3:00 꼬마 철학자 학교 40 모피와 친구들 50 크래머의 창의력 광장
4	4:00 오늘의 경제 4:10 세계인 스페셜 4:20 취재파일 K 5:00 KBS 뉴스 5:20 시사저널	4:00 TV 유치원 4:30 이육성 PD의 요리인류 키친 4:40 동물의 세계 5:00 글로벌 남편백서내편, 남편	4:25 MBC 일일 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5:00 MBC 이브닝 뉴스	4:00 좋은 생명이야 4:30 인생 자동차 5:00 내 마음의 크래머 5:30 SBS 뉴스파라이드	4:40 OBS 뉴스 & 이슈 5:40 체체119 보험의 기술	4:30 코코코 다코 45 싱동영 유치원 50 Why-최고! 호기심파지 5:15 투다다코 45 로보카 폴리
6	6:00 특집 <매마른 땅 버려지는 물> 6:55 시청자 클럽 우리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30 우리말 겨루기	6:00 글로벌 24 6:30 2TV 저녁 생생정보1 7:50 일일드라마 <다 잘될 거야>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일일 연속극 <최고의 연인> 7:55 MBC 뉴스데스크	6:05 생방송 투데이 7: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6:40 이웃도어 클럽 <중천노숙> 7:40 OBS 뉴스 M	6: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50 다문화 고부열전 스페셜
8	8:25 일일 연속극 <우리 집 골짜기> 9:00 KBS 뉴스	8:30 2TV 저녁 생생정보 2 8:55 위기탈출 남북편	8:55 일일 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9:30 리얼스토리 논	8:00 SBS 8 뉴스 8:55 생활의 달인	8:30 오늘의 월드 뉴스 9:00 특집한 연예 뉴스 9:45 세기의 라이벌, 지나이스	8:40 다큐 오늘 5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10	10:00 가요무대 11:00 KBS 뉴스라인 11:40 TV 책을보다	10:00 월화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11: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00 월화 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11:10 MBC 다큐 스페셜 <광복동 꽃밭>	10:00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15 힐링 캠프 500A	10:40 OBS 뉴스라인 11:05 로드다큐 <만남>	10:45 달라졌어요 11:35 최고의 요리비결 스페셜
12	12:20 해외걸작 드라마 1:10 금강철 한일요일 장영실쇼	12: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0 특파원 현장보고 1:30 행복한 지도	12:10 MBC 뉴스 24 12:35 2015 KIC 오프로드 그랑프리 최종전 1:35 TV 예술 무대	12:35 나이트 라인 1:05 특집 다큐 <엣그림, 인생을 말하다> 1:55 로드 투 평창	12:05 중국 드라마 <운주일가> 1:00 Music & Movie 1:30 OBS 경인포커스	12:05 지식채널e 10 EBS 인문학 특강 1:00 EBS 초대석

종합편성채널·케이블

종합편성채널	드라마	영화
◇ JTBC 07:30 JTBC NEWS 아침 & 10:05 히든싱어 14:35 JTBC 뉴스 현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9:55 JTBC 뉴스를 22:50 비정상회담 ◇ TV조선 06:50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09:40 김광일의 신동방송 14:30 정치부장 이하원의 시사Q 16:00 정상민의 시사탐Q 20:45 TV조선 뉴스쇼 '판' 23:00 이웃은 실화다 ◇ 채널A 09: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10:20 시사 인사이드 15:00 직업직설 16:30 레노남녀 21:40 채널A 종합뉴스 23:00 풍문으로 들었쇼SHOW	◇ KBS드라마 08:20 장사의 신 - 객주 2015 11:00 별이 되어 빛나라 13:00 오 마이 비너스 18:20 다 잘될 거야 19:40 불후의 명곡 23:50 해피투게더 시즌3 ◇ MBC드라마넷 05:00 메이퀸 09:15 내 딸, 금사월 13:10 화려한 유혹 17:40 정성민의 시사탐Q 19:10 복면가왕 21:00 나 혼자 산다 ◇ SBS플러스 07:55 애인있어요 10:45 어머니는 내 머리 13:50 출몰이 나르샤 16:25 강호대결 중화대판점 19:20 날선한 도시락 22:10 정글의 법칙	◇ OCN 10:00 CSI NY 시즌6 12:50 배티 칼리미 15:30 은밀하게 위대하게 18:10 가을을 즐기는 완벽한 방법 20:30 스타워즈 2 23:10 리얼 스타일 ◇ 채널CGV 07:00 결혼전야 10:50 페어런트 트랩 13:20 롤리코스터 15:20 로빈 후드 19:30 터미네이터4 22:00 천원만 건자씨 ◇ 스크린 10:20 금발이 너무해 12:15 게이머 14:00 침묵의 목격자 16:20 영웅: 천하의 시자 18:35 통창생 21:25 분노의 질주
연예·오락	스포츠	뉴스
◇ Mnet 07:50 M morning 10:40 Mnet Music Twit 13:10 M COUNTDOWN 15:50 Daily Music Talk 19:50 Live on M 22:10 헤드라이너 ◇ 코미디TV 09:10 맛있는 녀석들 11:30 코미디 빅리그 14:45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16:00 백종원의 3대천왕 18:45 마이 리틀 텔레비전 20:05 복면가왕	◇ KBS N 스포츠 12:0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14:30 출몰이 나르샤 시즌2 16:50 2015/2016 V리그 남자 <송극생방송-GS칼텍스> 18:50 2015/2016 V리그 남자 <대한항공-우리카드> ◇ MBC 스포츠 플러스 07:00 2015 목표달성만세 전국배드민턴대회 13:00 구구절절 15:00 2015 리틀야구 올스타전 23:00 2014 이스탄불 월드컵 8강 월드 레전드매치	◇ 연합뉴스TV 08:00 라이벌 투데이 09:50 남현호의 뉴스포커스 12:40 뉴스현장 16:45 뉴스워치 20:50 뉴스 Review 22:50 투니웃 23 ◇ YTN 08:00 이슈 오늘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 tvN 11:00 김법 백선생 12:20 응답하라 1988 16:10 문재철 남자 19:00 방송국의 시간을 팝니다 20:40 영단공개 21:40 쓸모있는 남자들	◇ SBS 스포츠 13:50 15-16 EPL H/L <17R, 스완지시티:웨스트햄> 18:45 15-16 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한민국 H/L 21:10 15-16 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우리카드>	09:00 NIB 초대석 10:30 VOD 차트박스 14:00 정책공감 '뉴수다' 15:00 넷트윙크인턴 16:30 인천시교육청 뉴스 20:00 미추올 생활정보뉴스

오늘의 운세

36년생 모든 일은 실속 있게 처리해야 한다. 48년생 가족 간의 의견충동이 예상된다. 60년생 물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널 것. 72년생 남의 일에 참견하면 망신당할 수 있다. 84년생 귀인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39년생 주변 어른이 불리하게 출렁간다. 51년생 좋은 정보를 얻겠다. 63년생 연인이나 배우자가 바람피울 수 있다. 75년생 모든 일에 끈기과 노력만 있으면 차츰 소중으로 질 듯. 87년생 뜻을 같이하면 2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42년생 망신당할 수 있으니 이랬사람의 충고를 피하라. 54년생 소신대로, 원칙대로 행동할 것. 66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결된다. 78년생 모든 일에 끈기와 노력만 있으면 차츰 소중으로 질 듯. 90년생 각별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되겠다.	45년생 맘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이득을 가져다 줄 듯. 57년생 오늘은 일찍 귀가하는 편이 좋겠다. 69년생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돌아가는 지혜를 가져볼 것. 81년생 열심 하면 인정해 주려라. 93년생 경쟁이 심한 곳은 피하라.
37년생 기본전환이 필요할 때. 49년생 원성할 수 있으니 나에게 맞게 행동할 것. 61년생 체면에 손상 가지 않도록 조심할 것. 73년생 젊어서도 노력하라. 85년생 마음에 들어도 신중하게 행동할 것.	40년생 간성하면 관계 악화된다. 52년생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 좋다. 64년생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보라. 76년생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88년생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43년생 한바탕 연으러다가 둘을 잃으니 주의하라 55년생 금채, 식중독 등으로 고생할 수 있다. 67년생 명성, 학업, 시험, 입찰 모두 좋다. 79년생 부부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날. 91년생 큰 나무에 기대어 그 덕을 보려는 형상이다.	46년생 수인이 확대될 수 있다. 58년생 뜻하지 않은 횡재수가 보인다. 70년생 심리적 갈등이 심하여 기분에 불화가 미치겠다. 82년생 마음에 안 들어도 싫은 내색하지 말 것. 94년생 과도한 욕심이 화가 될 수 있다.
38년생 기다리던 일에 좋은 결과가 오겠다. 50년생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대범하게 행동할 것. 62년생 몸은 바쁘게 실속은 적겠다. 74년생 일이 좀 잘 풀린다고 자만하지 말 것. 86년생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날이다.	41년생 철저한 준비 덕에 수월히 진행된다. 53년생 뒤에서 조언만 해줄 것. 65년생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77년생 청천으로 자신감이 생기는 날. 89년생 유통성 부족으로 손해를 보겠다.	44년생 지금까지 들인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듯. 56년생 오랜 고민 끝에 해결책이 떠오르겠다. 68년생 기본에 좌우되면 실수하는 일 발생한다. 80년생 자기 의견을 필요 이상으로 주장하지 말라. 92년생 문서상 계약에 유리한 날.	47년생 덩렁대던 귀중한 물건 잃어버릴 수 있겠다. 59년생 서둘러 말고 한 계단씩 오를 것. 71년생 생각지 못한 의외의 결과에도 염두를 둘 것. 83년생 동남쪽으로 기쁜 질병이 들어온다. 95년생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 것.

아름다운 도로! 밝은 도로, 안전한 도로! 새 시대의 도로를 만들어 갑니다

코스모스환보의 태양광에너지 기술은 깨끗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입니다

CosmosHuanbo
코스모스환보

태양광 정돈원의 원리
제품마다 장착되어 있는 태양전판이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며, 어두워지면 광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점등됩니다.

기대효과
I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II 전기배선이 필요없이 시공비가 거의 안듭니다. III 설치가 용이하며 전구수명은 반영구적입니다. IV 아름다운 조명으로 조경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V 상시 불이 들어오므로 방범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87-7 부천대우테크노파크 A동 402호
TEL. 032)670-899-8(826)8 FAX. 670-8368
E-mail. momopop055@hotmail.com

딸로 아내로 엄마로... 소소한 일상 책이 되다

월요일에 만나는 문학회

김순희 수필가

“문학세계에 들어온 날부터 ‘첫’을 많이 발견합니다. 살면서 잊고 있었던 ‘첫’이었는데 도처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최근야 알았네요. 문학을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알지 못했을 처음들이었지요.”

인전 삼산동의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일약 주목받는 수필가로 떠오른 김순희(47)작가가 최근 자신의 바깥 세상에 대한 소감이다.

강원도 영월의 산골마을 운학에서 태어나 한 가정의 아내·엄마로 살며 40여년간 있고 지내던 자기정체성의 뿌리를 끌어올리는 첫 번째 작업으로 최근 펴낸 산문집 「순희야 순희야」가 화제다. 40대에 문

학계에 입문한 늦깎이 수필가의 글이지만 기대 이상의 수준작이라는 평이다.

김작가는 “회계 경리로 직장을 다니고 가정주부로 살아온 나의 인생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최근 벌어지고 있다”며 “글을 쓰면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며 삶이 감동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말을 꺼내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또 “내놓은 작품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읽힐지가 걱정이다”라며 겸손함을 보였다.

하지만 들리는 평은 매우 좋다. 김순희 시인은 “시에 어울리는 짧은 글이 눈부시다”라는 평을, 문학평론가인 문광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맛깔스러운 작품성”을 그의 최고 장점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그의 글에는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TV 프로그램 ‘응답하라 1988’처럼 순간의 일상을 되새김질하고 찬찬히 들여다보며 지혜와 깨달음이

있는 세계로 독자를 이끄는 진정성이 묻어 있다.

수필 ‘홍옥’에서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이렇게 표현한다.

<“백설공주가 독 문은 사과를 먹고 죽은 거 알지? 잘못 알려진 거야. 사실은 백설공주가 난쟁이들에게 사과를 빼앗길까 봐 씹지도 않고 꺾지 않고 그냥 먹었다. 그러니 목에 걸리지 않게 꼭꼭 사과를 씹어 먹어라”라고 평소 애정 어린 목소리를 들려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거미줄 같은 실뿔들이 끈적끈적 엉겨 있어 힘겹게 입을 놀리었다. “눈이, 땅·이·아·프·다”

아버지 눈을 벌렸다. 눈 가까이 입을 가져갔다. 총혈된 눈동자를 허공으로 훑었다. 시원하다고, 고맙다고 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를 꼭꼭 눌렀다. 그때 알았다. 심장이아파다는 게 어떤 것인지.>



대학 평생교육원 열혈 수강생
4년간 공부 마치고 작가 등단
아버지 임종·언니들 이야기 등
평범한 내용 맛깔스럽게 풀어내

옛날 영월 산골에서 벌어진 이런 따뜻한 글을 읽은 영월군수는 사과 홍옥 한 상자를 그에게 보내 답했다.

김 작가는 “독자들께서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읽고 메일과 문자로 응답해 주실 때마다 초보 작가인 저로서는 너무 감동적이다”라고 말했다.

불교 신자인 큰언니와 예수 사랑이 깊은 셋째 언니를 그린 ‘보살언니 권사언

니’가 이 책의 최고 수작이라는 평가다. 직접 읽어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종교 이야기를 시작 감성과 재치 있는 구성미로 풀어내 오히려 마음에 다가오는 향기가 은은하다.

사실 수필가 김순희는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반에서 글을 배워 등단까지 한 열혈 작가다. 4년 동안 강의

를 맡아온 김순희 수필가 최초로 책을 펴낸 이

로도 유명하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생각으로 백지 상태에서 글쓰기를 시작해 작가로 불리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컸죠”라며 “저처럼 한 번 글쓰기에 도전해 보세요. 노력하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김경일 기자 kik@kohoilbo.co.kr



안양시 문화예술정책토론회 ‘오픈 토크’이 21일 개최된다. 사진은 제3회 토론회.

안양 청-장년 ‘문화 공감’

문예재단, 오늘 ‘오픈톡’ 토론회
사례 공유로 새 프로그램 모색

안양문화예술재단이 21일 평촌아트홀에서 ‘세대 간 소통과 교류, 공감의 가능성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문화예술정책 토론회 ‘오픈 토크(open talk)’ 행사를 연다.

예술가, 청장년 문화기획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진행해 온 세대 간 문화교류 시범사업과 유관사업 사례, 지역 밖에서 일

어나는 청장년이 노년과 만나 온 문화기획 사례, 예술가가 노년을 만나는 사례 등을 공유한다.

첫 번째 사례는 안양의 세대문화 교류를 주제로 한 ▶만안구청소년수련관 김기문 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과 노년의 세대 공감 및 만남과 대화’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이준호 팀장의 ‘선배 시민, 노년에게 다가가기’ ▶(유)별일사무소 이초영 대표의 ‘장노년의 자기표현과 소통 욕구’ 등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는 ▶수원누구나학습마을 류명화 코디네이터의 ‘중장년과 노년이 만나는 마을’ ▶명랑마주꾼 강희주 대표의 ‘청년과 노년의 포용’ ▶리리아퍼 옥유정 대표의 ‘청년, 노년의 놀이와 맛을 생각하다’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사례는 이웃상회 이희화 작가의 ‘이야기와 웃, 나를 만나다’가 마련된다. 구자홍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토론회가 내년 세대문화 기획을 점검하고 지역 내에서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택 기자 jtlee6151@kohoilbo.co.kr

원기범 아나운서, 오늘 콘서트하우스 현서 ‘자녀와 소통’ 주제 북콘서트

인천지역 인기 토크콘서트 자리잡은 i-신노에타의 기획공연 ‘똑똑! 똑똑! 북콘서트’의 21일 오전 11시 무대에 원기범 아나운서가 초청돼 강연한다.

이날 동인천 복합문화공간 ‘콘서트하우스 현’에서 진행되는 북콘서트에서 원기범 아나운서는 자신의 저서인 「부모의 말이 바뀌면 자녀의 인생이 바뀐다」

에서 강조한 ‘자녀와의 소통’이란 주제로 관객들과 이야기한다.

또 공부나 성공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들의 말 못하는 사정, 어떻게 하면 소중한 자녀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지 등을 부모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원기범 아나운서는 2014 인천아시아계



원기범 아나운서, 2015 세계 책의 수도 개막식 등 수많은 행사의 MC를 맡아 온 베테랑 아나운서로 ‘감동을 주는 MC 되기’, ‘소통의 정서’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의로 펼쳐는 화술(스피치)의 달인으로도 유명하다.

입장료 1만5천 원. 문의: 032-834-1055 김경일 기자 kik@kohoilbo.co.kr



크리스마스엔 공연 선물

**부천시 23일 시니어 문화공연
기타연주~동화구연 선보여**

부천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 ‘시니어 문화로 통(通)하다’ 발표회 겸 합동공연을 개최한다.

20일 재단에 따르면 사업의 성과를 나누는 이번 공연은 ‘크리스마스 콘서트’의 이름으로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복사골문화센터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발표회는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1부는 감미로운 선율을 들려주는 기타 연주, 2부는 온 가족이 다함께 즐기는 동화구연 무대가 펼쳐진다. 마지막 3부는 아름다운 화음을 자랑하는 여성 시니어들의 합창이 대미를 장식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ohoilbo.co.kr

**동탄복합문화센터, 24~25일
라바와 함께 듣는 키즈 클래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애니메이션 선과 함께 진행되는 신나는 클래식 공연 ‘키즈 클래식-크리스마스 라바’가 24일과 25일 양일간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진행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ohoilbo.co.kr
박천철 기자 jch@kohoilbo.co.kr

2016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설명회 개최



경기도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6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사업 지원 방법 및 절차, 분야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추진방향	
비전	창조적인 기술혁신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목표	기술개발사업의 촉진 및 글로벌 시장 개척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 ○ R&D 기반 구축 및 창업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성장 또는 수입대체 등 가능 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R&D 기획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 • 정부 R&D 과제 참여 유도 • R&D 기반이 부족한 북부지역 강화 • 기술기반이 취약한 부품소재(고무 산업)육성 • 창업기업의 기술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 70억 원 내외 ○ 지원대상 : 도내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 지원방식 : 공모 ○ 도비지원 : 총사업비의 60%[기업부담금 40%(현금 10%이상 부담)] ○ 사업기간 : 1년 ○ 세부내용
지원 분야	사업 내용
기업주도 기술혁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수요 중심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3년 미만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도내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수출 또는 수입대체형 기술개발 과제 지원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획 R&D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산학연과 연계하여 개발 타당성 분석, 사업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 전략 수립 기획 및 관련 교육
	R&D기획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사업화 지원으로 사업화 촉진 신규 시장 진출

3. 신청자격 : 도내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 주관기관

유형	자격
기업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 참여기관

유형	자격
기업	경기도 소재 기업 (①~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지원분야별 세부 신청자격은 설명회 및 2015년 12월 24일 이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4. 사업설명회

구분	일시	장소 (주소)
주요 설명회	1. 5.(화) 14:00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하2층 국제회의장
경기 북부 설명회	1. 7.(목) 14:00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2층 210호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기술지원팀
☎. 031)888-6831 ~ 6838 E-mail. gstep1@gstep.re.kr



'경기지역 보도사진전'에 남경필 도지사 등 참석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오후 수원역 대합실에서 열린 '2015 경기지역 보도사진전'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찬민 용인시장, 김동근 수원시 1부시장, 김시범 경기일보 사진부장 등 참석한 내빈들과 축하테이프 커팅을 마치고 축하사를 했다.

김나훔 기자 hero43k@kohoibbo.co.kr



이기우 도부지사·경기사랑봉사회 연탄 배달 봉사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와 경기도청 직원 봉사단체인 경기사랑봉사회 회원들은 지난 19일 오전 9시 화성시 매송면 일대 저소득 홀몸노인과 노숙인센터에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부지사를 비롯해 김원섭 경기사랑봉사회 회장과 4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홀몸노인 5가구와 노숙인센터인 예성영성원에 연탄 2천600장을 배달했다.

경기사랑봉사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 배달, 복지시설 봉사, 농촌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기우 부지사는 "도청 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없도록 지역 곳곳을 두루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섭 경기사랑봉사회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봉사에 계속 참여해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김나훔 기자 hero43k@kohoibbo.co.kr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쌀 1600kg 복지시설 전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갖고 1천 600kg의 쌀을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지난 2009년부터 도의회 새누리당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자발적인 쌀 기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53명이 모은 쌀 1천600kg은 의정부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솔밭터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굽드리네집, 광명 사랑의집, 남양주시 일시정소년회 및 안나의집, 수원시 지동·행궁동·우만1동 주민센터 등에 전달됐다.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대표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위로와 힘이 돼 드리고자 의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ohoibbo.co.kr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대 K-ACE사업단과 협약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최근 경기대학교 K-ACE 특성화사업단(미래세대를 위한 행복교육 실천공동체 구축 사업단)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기관은 ▶ 경기대학교 학생의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 봉사활동(동화책 활용한 행복교육) ▶ 지역교육문화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최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나훔 기자 nhp@kohoibbo.co.kr

곳은 일 힘들어도... 진심 다하니 보람차요

당신이 있어 행복한 세상

경기도청 공무원 사랑나눔봉사회

복지 업무경험 통해 행정지원 못 미치는 곳에 관심 갖기 시작
매달 노인위탁시설 찾아 빨래·청소... 직원 가족 참여도 늘어

2012년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이면 청소도구와 과일 등을 품에 가득 들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소재 '사랑의 선교수녀원'을 찾는 이들이 있다. 바로 경기도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사나봄'(사랑나눔봉사회) 회원들이다. '사나봄'은 도 미래전략팀에 근무 중인 정덕재 팀장과 도 보건정책과 소속 김진현 팀장을 비롯해 7~10명의 회원들로 구성됐다. 김 팀장은 도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던 2012년, 함께 일하던 박덕진 과장의 권유로 '사나봄'을 재창단했다. 이전에도 도청 내에 팀을 꾸

려 봉사활동을 수행하던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점차 활동이 저조해지며 사실상 해체된 상태였다. 이에 박 과장이 회장을, 김 팀장이 임시총무를 맡아 선후배 공무원들과 함께 새롭게 '사나봄'을 꾸려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도 장애인복지과에서 3년간 근무했던 김 팀장은 "도내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의 복지 관련 행정업무를 맡았던 경험이 자연스럽게 봉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를 설명했다. 김 팀장은 "당시 워낙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곳도 많고 도움이 필요

한 곳도 많았지만 행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좋은 뜻으로 시작한 모임이라 힘들어도 뿌듯한 마음으로 빨래, 청소 등 잡일을 맡는다"고 말했다. 천주교 수원교구청 소속인 사랑의 선교수녀원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친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 할머니들을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수녀들과 할머니들만 생활하다 보니 곳곳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었다. 이런 사정에도 김 팀장과 사나봄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할머니들의 침구와 옷가지 등을 모두 수거해 깨끗이 손빨래하고 시설 안팎을 청소하고 있다. 또 찾는 이들이 없어 할머니들이 쓸쓸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이야기도 나누며, 수녀들이 가꿔 온 텃밭의 풀을 뽑고 농작물 수확도 돕고 있다.



최근에는 굴과 바나나 같은 과일은 물론 방한용품도 마련해 할머니 한 분, 한 분을 챙기기도 했다. 김 팀장은 "'사나봄'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지만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모르는 도청 공직자들이 '사나봄'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민 기자 min@kohoibbo.co.kr

기부 행복 알려준 친척따라 '뜻깊은 동참'

박종업 씨, 성남지역 '아너 소사이터티' 12번째 가입

성남지역에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터티'의 12번째 회원이 탄생했다. 수정구 태평동 현대시장에서 생활용품 할인매장 '보물창고'를 운영하는 박종업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박 대표는 지난 17일 성남시청 2층 시장실에서 이재명 시장과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 가입식을 갖고 1억 원 기부를 약정했다.

약정금은 오는 2019년 11월 15일까지 매달 200만 원씩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다.

이 기부금은 박 대표의 뜻에 따라 수정지역 저소득층 초·중·고생 20명에게 4년간 매달 1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박 대표는 "친척 중 한 분이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박종업·용인시 1호)이 돼 노인복지시설을 도우며 행복해지는 모습에 회원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며 "3년째 기부해 온 착한가게 후원금(1천220만 원)과 더불어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성공이 지속된다"며 "시민을 위해 마음 써 주고 후원에 쥐 감사하다"고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ohoib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ohoibbo.co.kr



했다. 아너 소사이터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지도자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게 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2007년 12월 설립됐다. 전국 회원은 12월 9일 현재 960명이다.

통일시대 기틀 함께 만들어요

민주평통 고양시협 북한이탈주민 초청 송년행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가 지난 18일 오후 6시께 덕양구 화정동 베네치아비뷰에 회의장에서 북한이탈주민 200여 명을 초청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2015년도 활동보고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우신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김진홍 부시장, 지역 출신 국회의원, 시·도의원, 각 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실시한 협의회의 활동성과 보고회와 함께 유공자 표창 및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송년회 등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회원들과 국민라이온스클럽 등 유관기관에서 정성껏 준비한 많은 선물들이 증정돼 훈훈함을 더했다.



우신구 회장은 "자유를 찾아 고초를 겪으며 탈북에 성공한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 및 정착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 민주평통자원위원과 함께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ohoibbo.co.kr

소외이웃 넓은 집·김장 걱정 뚝

평택 삼성물산 P-PJT 소외계층 100가구에 선행

삼성물산 '평택 P-PJT 현장사무소'가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봉사활동으로 지역 내 귀감이 되고 있다.

20일 삼성물산 평택 P-PJT 현장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수급자 100가구에 부식 선물세트를 지원했고, 11월에는 애항아동복지센터를 찾아 생필품 전달 및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총 25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집수리를 받은 김모 할머니는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 근심이 많았는데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이렇게 수리해 주니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삼성물산 평택 P-PJT 현장사무소는 소외계층을 돌보는 봉사활동 외에도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직원 50여 명이 참여 지제역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itk@kohoibbo.co.kr



시흥 생활체육 스키연합회 북한이탈주민 초청 대회

시흥시 생활체육 스키연합회가 19일과 20일에 걸쳐 이전 시 지산스키장에서 탈북민 및 스키동호회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흥시장이 스키대회를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4회째 이어지는 대회에서 김희선 회장은 "우리 시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이 주말을 이용,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며 주위의 관심을 당부했다.

시흥=이윤철 기자 oclee@kohoibbo.co.kr



안산 원곡본동 주민·단체 국토대청결 운동 진행

안산시 원곡본동은 지난 17일 유관단체 및 주민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원곡본동 다문화길 일대 생활쓰레기 정비와 무단 투기 주민에 대한 계도 및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다문화길 일대는 국토대청결 운동 및 무단 투기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쓰레기 근절을 위해 동 주민센터와 주민들이 함께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지역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ohoibbo.co.kr



여주 NH농협은행, 시에 장학금 1000만 원 전달

여주 NH농협은행은 지난 17일 시청을 방문해 원경희 시장에게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NH농협은행이 수익금 일부를 출연해 마련했으며, 이길주 여주시장은 "앞으로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원경희 시장은 "장학금을 지원해 준 NH농협은행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여주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ohoibbo.co.kr

안보 가치 숨쉬는 인천... 1년 발자취 돌아보다

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2015년도 사업실적 평가회' 개최 통일 기반 사업 등 기여한 본보 한창원 사장 등 81명 시상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는 지난 18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조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사업 평가 및 내년도 활동을 다짐하는 '2015년도 사업실적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통일 기반 조성사업과 인천지역 봉사활동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표창이 수여됐다.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이 세계자유민주연맹상 자유장을 수상한 데

이어 서구지회 강신덕 회장이 봉사장을 받았다.

아울러 유공회원을 대상으로 총재 표창 26명, 인천시장 표창 17명, 인천시의회 의장 표창 14명, 인천경찰청장 감사장 10명, 시지부회장 표창 14명 등 81명에게 시상했다.

10개 지회의 활동실적을 평가한 결과 남동구지회가 최우수지회로 선정됐다.

이정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5년은 태극기 달기 실천운동, 전



재음식 시식회, 맥아더 길 지정 축하행사 등 인천시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리고 대한민국이 안보와 안전, 자유통일에 매진하는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윤택 기자 cyt@kohoibo.co.kr

모임

▶ 제24회 인천예총 예술상 시상식 및 인천예총인의 밤=21일(월) 오후 5시 인천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 ▶ 44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시지회 제21회 인천평생교육유공자 시상식 및 회장 이·취임식=22일(화) 오전 11시 인천로얄호텔 그랜드볼룸. ▶ 2015 인천대학교 감사와 후원의 밤=23일(수) 오후 7시 인천대 다목적홀(교수회관 1층).

알림

▶ 인천 동심원 '알콩달콩, 동·행 감사잔치'=21일(월) 오후 6시 30분 동심원 지하 1층 남남실.



영흥화력 '2015년 자원봉사대상'서 행사부 장관 표창

한국남동발전전력영흥화력본부는 지난 18일 '2015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영흥화력본부는 인천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기부 및 노력봉사를 통해 거주인들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후원하고,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았다. 배재동 기자 jongjb@kohoibo.co.kr



김병원, 웅진군 덕적도 소아리 주민 대상 의료봉사

가천대 김병원은 최근 인천시 웅진군 덕적도 소아리 마을회관에서 섬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섬 지역 의료봉사는 가천대 김병원이 지난 3월 웅진군과 맺은 '섬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근 병원장과 응급의학과·심장내과·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 간호사 등 봉사단원 11명이 참여했다. 이근 병원장은 "지속적으로 섬 주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근 기자 ajk@kohoibo.co.kr

올겨울 연탄 나눔 불씨는 어김없이 활활~



'리틀소시에 송도캠' 초록우산에 바자회 수익금 전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연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병권)은 지난 17일 '리틀소시에 송도캠퍼스' 원생들과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리틀소시에 송도캠퍼스 원생 및 학부모들은 이날 11일 바자회 개최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인천지역 주거빈곤 아동을 돕자는 데 뜻을 모으고 성금 24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리틀소시에 송도캠퍼스 정중대 원장은 "아이들이 착한 마음으로 직접 모은 수익금을 후원하게 돼 더욱 대견스럽고 기쁘다"며 "어린 시절부터 생활 속 즐거움 나눔의 경험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일 기자 kik@kohoibo.co.kr



정강의료재단 봉사단, 부평구 상정마을에 5000장 기부

정강의료재단 '사랑나눔 봉사단'은 지난 19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상정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의료법인 정강의료재단 JK정강병원·위드미요양병원·JK위드미·JK위드미NEAT성형외과피부과 임직원 100여 명이 홀몸노인과 장애인가정 등에 연탄 5천 장을 직접 전달했다. 정광모 정강의료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가 사회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소외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기자 kik@kohoibo.co.kr



인천시비전기업협회, 중구 동화마을에 5000장 나눔

(사)인천시비전기업협회는 최근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을 찾아 연탄 5천 장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일전자책, ㈜파버나인, 이오에스㈜ 등 협회 임원 사에서 마련한 연탄 1만 장 중 5천 장을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동화마을 20가구에 우선 배달했다. 안재호 회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많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마을이 무거웠지만 훈훈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중국 기자 kjk@kohoibo.co.kr



'제5회 푸르미 우수봉사대상' 127명 수상 영예

푸르미가족봉사단(단장 박위광)은 지난 1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5회 2015년 푸르미 우수봉사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봉사대상 시상식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지역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푸르미가족봉사단 전체 68개 학교 봉사단과 2만8천여 가족단위 중에서 단체 및 개인 부문으로 시상됐다. 봉사대상 단체 부문 봉사대상 학교는 산곡여자중학교가 인천시교육감상을 받았으며, 개인 부문 학생 봉사대상은 조은아(신정중)·최보람(제물포여중)학생이 영예의 인천시정상을 수상했다. 이어 푸르미봉사상, 교육감상, 교육장상, 국회의원상 등 전체 12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희연 기자 khy@kohoibo.co.kr

학도병들의 구국정신 전파 앞장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 17차 정기총회·강연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는 지난 18일 인천 수림공원가든 본관에서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17차 정기총회 및 안보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감사 결과 총평 및 결산보고, 안보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현생 회장은 "인천학도의용대 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회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며 "호국의 열기와 희생정신으로 가득했던 학도병들이 반세기 긴 여로를 지나 고령의 나이로 이 자리에 있지만, 학도병들의 구국정신이 후세들에게 이어지도록 우리가 앞장서자"고 독려했다. 또 그는 "앞으로 이 나라에 지난 역사를 생생하게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국전쟁과 같은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은 힘이나마 보태자"고 덧붙였다. 최윤택 기자 cyt@kohoibo.co.kr



이어 안보강연에 나선 우정길 인천지역 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은 "한국이 전 세계 우방국들과 끈끈한 동맹을 맺고 있는 한 절대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학생 신분을 버리고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전장터로 나간 인천학도의용대가 버티고 있는 한 북한의 도발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화군새마을회, 올 인천시 군·구 평가서 '최우수'

강화군새마을회는 인천시새마을회가 주관한 '2015년도 인천시 군·구 새마을종합평가'에서 최우수지회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강화군새마을회는 인천시 10개 군·구 종합평가에서 조직관리, 재정자립, 4대중점분야 추진과 읍면동 공동체운동 등에서 고른 평가점수를 획득하며 최우수지역으로 평가돼 작년까지 이어다 한 번 최고 지회라는 명예를 얻었다. 박주하 군새마을회장은 "최우수 지회 선정은 올 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헌신·봉사한 회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더욱더 분발해 제2새마을운동의 선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ohoibo.co.kr

시민 '삶의 질' 향상 힘쓴 이들

'제3회 인천사회복지사대회' 10명 표창장 수여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인천지역 사회복지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제3회 인천사회복지사대회'는 올 한 해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며 헌신한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악 3중주 초청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복지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한편,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에 평생회비를 납부한 6명의 회원에게도 평생회원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유정복 시장, 노경수 시의회 의장, 이정연 교육감 등 각계 인사들과 인천지역 사회복지사, 복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하며 화합했다. 우육관 회장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열



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힘써 준 2만여 사회복지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회원을 위한 협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ohoibo.co.kr



삼천리그룹, 동심원 등 아동시설 5곳에서 나눔 행사

삼천리그룹은 지난 17일 경기·인천의 5개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사랑 나눔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200여 명의 삼천리그룹 직원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안양의 집과 수원 경동원, 안산 선부종합사회복지관, 평택 안중방정원재단, 인천 동심원 등 5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산타로 변신한 임직원들은 어린이들과 어우러져 얼굴에 크리스마스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트리를 장식하며 케잌을 부르는 등 따뜻한 성탄 분위기를 연출하고, 정성을 담은 후원금을 각각 전달했다. 인천동 기자 airin@kohoibo.co.kr



1716일 만에 EPL 골맛

후반 교체투입 7분 후 시즌 리그 첫 득점... 2대1 팀 승리 견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크리스탈팰리스의 이정용<사진>이 이번 시즌 리그 첫 골을 터뜨렸다. 이정용은 20일(한국시간) 영국 스톡 시티의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스톡 시티전에서 팀의 2-1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을 성공시켰다.

지난 시즌 불탄에서 크리스탈팰리스로 이적한 이정용은 지난 8월 26일 캐피탈윌킵 슈루즈버리(3부리그)전에서 골을 넣은 뒤 약 4개월 만에 크리스탈팰리스 유니폼을 입고 골맛을 봤다.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따지면 2011년 4월10일(불탄 시절 득점) 이후 4년8개월(1716일) 만의 득점이다.

크리스탈팰리스는 전반 추가시간 코너킥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앞서 갔지

만 후반 34분 페널티킥 실점을 허용하며 1-1 원점으로 돌아왔다. 후반 36분 윌프리드 자하와 교체 투입된 이정용은 후반 43분 페널티지역 우측에서 반대쪽 골대 구석으로 오른발 슈팅, 골망을 갈랐다. 이날 경기 전까지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던 이정용은 이날 천금같은 결승골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지동원과 홍정호가 풀타임 출전한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는 함부르크를 1-0으로 이기며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승1무의 상승세를 기록

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후반 31분 라울 보바디아의 슈팅이 키퍼에 맞고 나오자 안 모라베이 정확히 헤딩, 결승골을 터뜨렸다. 지동원은 전반 33분 측면 크로스에 몸을 갖다뒀지만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고, 후반 22분에는 키퍼에 맞고 나온 공이 자신에게 왔지만 슈팅으로 연결 짓지 못했다.

직전 2015-2016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도르트문트전에서 부상을 당했던 구자철은 이날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오리온 드디어 3연패 탈출했다 고양실내체육관에서 20일 열린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과 부산 kt 경기, 고양 측이 레이아웃을 하고 있다. 오리온이 92대 66으로 승리, 3연패 수렁에서 탈출하며 선두 모비스와 2경기 차 2위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1쿼터에만 실책 6개 주저앉은 신한은행

여자농구 23점 차 패배 공동 2위

여자프로농구 1위 춘천 우리은행을 바짝 쫓고 있는 인천 신한은행이 이번에는 23점 차라는 큰 점수로 패배 공동 2위로 내려앉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우리은행과의 원정경기에서 수비와 실책으로 무너지면서 57-80으로 패했다.

지난달 25일 청주 국민은행전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한 뒤 같은 달 30일 신한은행전부터 7연승을 이어간 우리은행에 반해 3연승을 달리던 신한은행은 이날 패배로 8승6패가 됐다. 이번 시즌 우리은행과

의 3경기에서 모두 패한 신한은행은 부천 KEB하나은행과 공동 2위가 됐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의 강한 압박에 밀려 실책을 6개나 범하는 등 1쿼터에만 10-28 큰 점수 차로 벌어졌고 2쿼터 29-44, 3쿼터 42-68 등으로 좀처럼 점수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제대로 된 플레이를 펼치지 못한 신한은행은 23점 차 패배를 안았다.

정인교 신한은행 감독은 "초반에 약속한 수비가 잘 안 됐고, 실책도 많았다"며 "전체적으로 감독과 선수가 추구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플레이를 못해 보고 무너졌다"고 이날 경기를 평가했다.

최유태 기자 cyt@khihoilbo.co.kr

부천FC, 조범석 등 새얼굴 6인 공개



프로축구 부천FC가 우선지명 및 자유선발로 입단한 신입 선수 6명을 공개했다. 20일 구단에 따르면 이번에 영입한 선수는 내셔널리그 출신의 조범석(26·목포시청·MF)과 김대광(24·울산현대미포조선·FW), 대학 졸업생 임동혁(23·숭실대·DF)과 정준현(22·중앙대·DF), 부천FC 유소년팀 출신의 이윤환(20·부천FC U-18·FW)과 하지원(19·부천FC U-18·MF)이다.

3년 연속 내셔널리그 어워즈에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며 실력을 인정받은 조범석은 내셔널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에 7득점 9도움을 기록했다. 김대광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진행한 유망주 육성 프로그램 6기 출신으로 김학찬, 이강 등과 함께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유학한 인재다. 2015시즌 울산현대미포조선에 입단해 15경기 출전했고, 새드 스트라이커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겸할 수 있는 공격 자원으로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킥력을 갖췄다.

장신 수비수 임동혁은 숭실대 주장으로 큰 키를 활용한 안정적인 플레이와 수

비력이 돋보이는 중앙 수비수이며, 2012년 U-20 대표팀을 비롯해 2014년 U-21 대표팀, 최근 U-22 올림픽 대표팀까지 합류하며 연령별 대표를 두루 거쳤다. 중앙대 주전으로 U리그 전 경기 출장 중인 정준현은 빠르고 지능적인 플레이를 자랑한다. 부경고 재학 당시 이창민 등과 함께 부경고를 고고 축구 최강팀으로 만들었고, '면도날 커터맨'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우수한 경기력을 보이며 우수 수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천FC U-18 출신 이윤환과 하지원은 부천FC에 입단했다. 두 선수는 부천FC U-18팀의 주전 공격수와 미드필더로 '2015 K리그 U-18 챔피언십' 8강 진출이라는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어 낸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특히 이윤환은 전기리그 6골을 기록하며 팀내 득점 1위는 물론 리그 득점왕까지 노린 골재이다. 수비형 미드필더 하지원은 투지 넘치는 허슬플레이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 주며 자타공인 K리그 주니어의 가두소로 불렸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수원 생활체육인 12명에 '유공 표창'

수원시생활체육회는 지난 18일 제이마리스웨딩홀에서 '2015 수원시 생활체육 동호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 김진표 전 경제부 총리, 정미경·박광운·박원석 국회의원, 종목별 연합회 임원 및 동호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삼욱 시조정연합회장과 유기서 시북상연합회장, 김이령 시불링연합회장, 고평호 시승마연합회장, 김병문 시그라운드골프연합회장 등 5개 종목별연합회 신

임 회장에서 인준패가 수여됐다. 신미용 시탁견연합회장과 이강진 시게이트볼연합회 수석부회장 등 6명이 수월시장 표창, 이종인 시육상연합회 운영이사 등 2명이 수원시의회 의장, 김윤재 시축구연합회 이사 등 2명이 경기도생활체육회장, 박숙희 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이사 등 2명이 수원시생활체육회장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시생활체육회 및 51개 종목연합회가 모은 쌀 전달식(10kg들이 555포)도 함께 열렸다. 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kt, SK 신현철 '무상 트레이드' 영입

"연고지 출신 센터라인 백업 보강" 수원 리틀야구단 초청 용품 전달



프로야구 kt 위즈는 SK 와이번스의 내야수 신현철(28)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SK와 조건 없는 트레이드를 통해 성사됐다. 신현철은 수원 유신고를 졸업하고 2006년 2차 드래프트 5라운드에서 현대 유니콘스에 지명돼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이후 넥센 히어로즈와 SK 와이번스에서 선수생활을 해 왔다. 올 시즌에는 1군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60경기 출전에 타율 0.262에 1홈런 3타점을 기록했다. kt 위즈 관계자는 "연고지 출신인 신현철의 영입으로 센터라인 백업 보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프로야구 kt 위즈는 지난 18일 홈구장인 수원 kt위즈파크로 수원시 리틀야구단을 초청해 야구용품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이어 kt구단과 팬이 함께 참여하는 기부 프로그램 중 두 번째 행사다. 야구용품은 올해 수원 kt위즈파크 입장권 판매 금액 일부(3%)와 유니폼 판매 건당 500원을 적립해 조성한 기부금으로 구입했다.

kt구단은 수원시야구협회와 공동으로 연 이날 행사에서 수원시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등 리틀야구단 4개 팀에 겨울 야구 훈련을 위한 넥워머, 폴오버 등 용품을 전달했다.

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탁구 종합선수권, 파란의 전지희·반란의 박강현

세 번 2위 올랐던 여자단식 전지희 문현정을 4대1 완파하고 첫 우승

남자부 '실업 1년차' 19살 박강현 2연패 노린 정영식 체져 깜짝 1위



'실업 1년차' 박강현(19·삼성생명·오른쪽)이 탁구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단식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박강현은 20일 충북 단양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제69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지난해 우승자 정영식(23·KDB대우증권)을 4-0으로 완파했다. 준결승에서 국가대표 '만형' 주세혁(3

5·삼성생명)을 4-2로 꺾고 결승에 오른 박강현은 대회 2연패를 노리던 정영식을 몰아붙여 승리했다. 1세트를 11-8로 따낸 박강현은 2세트에서 정영식과 공방을 주고받다가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10으로 이겼다. 상승세를 탄 박강현은 3세트도 11-7로 가져간 뒤 4세트에서도 11-7로 승리하며 정영식의 추격을 뿌리쳤다. 실업 1년차가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

선수권 대회 남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01년 유승민(삼성생명 코치) 이후 처음이다.

여자 단식에서는 2011년 중국에서 귀화한 전지희(23·포스코에너지·왼쪽)가 문현정(31·KDB대우증권)을 4-1로 꺾고 우승했다. 전지희는 그동안 이 대회 세 번의 결승에 올랐다가 준우승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첫 우승을 일궈냈다.

귀화 선수가 종합선수권에서 우승한 것은 광방방, 당에서, 석하정에 이어 전지희가 네 번째다.

남자 단체전에서는 KDB대우증권이 에스오일을 3-1로 물리치고, 지난해 삼성생명에 내준 정상을 2년만에 되찾았다. 여자 단체전에서도 최근 복귀한 김경

아(38)가 활약한 대한항공이 지난해 우승팀 KDB대우증권을 3-0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 대회 단체전 7연패를 차지했던 대한항공은 이번 우승으로 지난해 KDB대우증권에 내줬던 우승컵을 가져왔다.

남자 복식 결승에서는 정영미-장우진(KDB대우증권)이 처음 출전해 김경만-박찬혁(KGC인삼공사)을 3-1로 물리쳤고, 여자 복식에서는 정유미-최효주(삼성생명)가 전지희-유은종(포스코에너지)을 3-0으로 꺾고 우승했다. 혼합 복식에서는 김동현(에스오일)-지은채(대한항공)가 임종훈(KGC인삼공사)-김민희(해츠린)를 3-1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사진=월간 탁구 제공>

오늘의 경기

◇21일(월)
▶ 여자농구=신한은행-KEB하나은행(오후 7시·인천도원체육관) ▶ 프로배구=여자부 흥국생명-G S칼텍스(오후 5시) 남자부 대한항공-우리카드

후 7시·이성 인천계양체육관) ▶ 농구=농구대잔치(오전 11시 30분·성남시실내체육관) ▶ 핸드볼=전국고교선수권대회(오후 10시·고창실내체육관 및 고창군립체육관)

시흥시 '마키아뚝' 프로젝트 순항 중

<마을이 키우면 아이들이 똑바로 큼니다>

올해 정왕2동 거점으로 시민참여형 마을자원 조사 실시 성과 공유회로 활동사례 나눔... 내년 연계학교 지원 확대

시흥시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마키아뚝(마을이 키우면 아이들이 똑바로 큼니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마키아뚝'은 마을교육의 비전을 담은 교

육 지원 프로젝트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학교와 마을이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고 있다.

올해는 정왕2동을 거점으로 시흥중학교 학생, 교사를 비롯해 인근 국화향기숲마을학교, 참새방

앗간, 상상까리마을학교 마을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참여형 마을자원조사 활동 등을 함께했다.

마을자원조사는 26개의 초·중·고등학교와 마을학교, 도서관 등을 아이들과 마을 주민이 찾아가 인터뷰하고 조사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활동사례는 신문으로 만들어 마키아뚝 성과 공유회를 통해 나누기도 했다. 마키아뚝 우

수 사례는 2016년 학교 연계 마을학교 지원사업으로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마키아뚝 성과 공유회에 참여한 시흥중 담당교사는 "내년에는 자유학기제 등 보다 적극적인 수업의 형태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을 고민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21일 오후 3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올 한 해 동안 마을교육에 참

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흥시 교육정보 나눔마당을 개최하기로 했다.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교육과정 및 자유학기제 담당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흥시 부서·기관의 교육정보를 총망라하고 마을교육자원이 학교교육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시흥=이유철 기자 oclee@kihoilbo.co.kr

개정된 연말정산 내용 '귀에 쏙'

성남교육지원청 담당자 교육 업무 능력 높이는 비법도 강의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유·초·중·고 연말정산 담당자 및 희망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분당세무서 이건설 조사관을 강사로 초빙한 이날 교육은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개정된

내용 위주로 실시됐다. 또 학교 실정에 맞게 연말정산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는 교육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도영 경영지원국장은 "2015년 개정된 내용이 일선 학교 대상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돼 학교 현장에서 연말정산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인천시교육청이 19일 제1회 모두가 함께하는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을 열고 행복배움학교의 성과를 보고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경북대,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대학부문 수상

경북대학교는 2015년 '제4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대의 교육기부대상 수상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기부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경북대는 2011년 교육기부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학교와 학과, 학생별로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대는 보유한 교육자원을 지역의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적극 개방했다. 최근에는 서울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학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청소년들에게 개방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목적에서다.

김영수 교수(경북레오클럽 지도)는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을 두 차례나 수상하게 된 것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기부문화가 캠퍼스 전체에 퍼져 학과와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북대는 앞으로 교육기부문화가 경북대만의 대학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표현=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행복배움학교' 성과 한눈에

인천시교육청 혁신교육 한마당 사례 발표·토론회 등 열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9일 경인교대 인천캠퍼스에서 교사와 학부모, 지역 교육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인천 학교 혁신의 성과와 사례를 나누는 '제1회 모두가 함께하는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행복배움학교(인천 혁신학교)'의 성과를 인천지역 교사·학부모·시민과 함께 나누고, 내년을 설계하기 위한 자리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행복배움학교 사례 발표와 토론회 등으로 시작했다.

또 전복도교육청 김승환 도교

육감의 '혁신교육의 방향 및 교사 전문성'이란 주제 특강과 95개 학교 혁신 동아리들이 15개 분과로 나눠 1년간 활동사례를 나누는 협의회가 이어졌다.

인천 행복배움학교는 올해 10개 학교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초교 12곳, 중학교 7곳, 고교 1곳 등 총 20개 학교가 추가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혁신학년 30개, 교사 학습모 동아리 60개, 행복배움학교 학부모 동아리 5개 등도 운영된다.

김동래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노력한 그동안의 사례를 서로 나누고 배워서 내년 인천교육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유탣 기자 cyt@kihoilbo.co.kr

나만의 직업·인생의 기쁨 찾는 즐거운 독서 놀이터로 오세요

인천화도진도서관 초등생 대상 겨울교실 운영

인천화도진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2016년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서관, 꿈을 찾는 책 놀이터'란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겨울독서교실은 진로를 중심으로 관련 도서·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 발견은 물론 다

양한 직업 탐색,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삶에 대한 긍정적 동기부여 등을 위해 계획됐다. 나의 가치와 행복한 성공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위대한 나를 찾아라!'를 시작으로 '이런 JOB, 저런 JOB', '나만의 VISION 만들기', '진로 긍정 배틀', '나의 꿈을 선포하라!', 'MISSION 진로 장벽 뛰어넘기', '나는 글쓰기 대장' 등 다

양한 독후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학교장 추천과 개별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개별 접수는 선착순으로 오는 24~31일 화도진도서관 어린이자료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도진도서관 홈페이지(www.ihl.kr)나 어린이자료실(☎032-760-41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유탣 기자 cyt@kihoilbo.co.kr

의왕 청소년 진로콘서트 '드림 토크' 성료

의왕시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기 위한 청소년 진로콘서트가 열렸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는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꿈터'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고등학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콘서트 '드림 토크'를 개최했다.

행사는 드림러너 양유진 씨의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인재양성소 인규 윤소정 대표, 개그맨 광범, 인디밴드 조인아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의 진로 고민 인터뷰 영상 및 콘서트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고민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알찬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미술과 댄스 공연, 걸그룹

스위치걸의 축하공연, 인디밴드 조인아의 힐링송 공연 등이 어우러져 입시교육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함께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진로콘서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시간이 돼 좋았고, 특히 다이나믹한 구성을 통해 지루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사가 꾸준히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꿈터'는 오는 28일 지역 기업체 및 공공기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냉난방 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하세요.

본사 명예홍보이사
탈린트 이영후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방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남양주시청 의왕시청 용인시청

"수명이 오래가는 명품 고급방수"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영등포경찰서

2014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주요실적

- SAMSUNG 삼성전지소재
- 인천소방안전학교
- 구리시청소년수련관
- 경인고등학교
- 송전중학교
- 용진부전산림조합

인양부민초등학교
- 하남소방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블로그 <http://blog.naver.com/waterproof01> www.IPALG.co.kr

인천·부천 (032)471-6020	안양·안산 (031)422-1237	과천 (02)502-0494	안성 (031)676-2885	구리 (031)567-5576	동두천 (031)861-5576	광주 (031)767-0470
남수원·화성 (031)233-8061	고양·일산 (031)907-6029	광명 (02)2625-7904	의왕 (031)241-6921	포천 (031)531-5567	김포 (031)907-6029	군지암 (031)767-0470
북수원 (031)241-6920	의정부 (031)872-5576	성남 (031)733-4416	평택 (031)657-0423	양주 (031)842-5576	용인 (031)322-7751	가평 (033)243-1728
양평·용문 (031)771-7782	남양주 (031)594-4416	하남 (031)734-4417	오산 (031)372-0893	파주 (031)947-5576	이천 (031)636-7783	춘천 (033)241-8954

檢인사 앞두고 아름다운 퇴장

강찬우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내부게시판 이례적 댓글 열기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강찬우(53·사법연수원 18기) 수원지검장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 사직을 안타까워하는 후배들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 검사 게시판에 15일 강 지검장이 남긴 '사직의 글'에는 20일 현재 500여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강 지검장은 해당 글을 통해 "10여 년 전 썼다가 간직했던 사직서를 드디어 오늘 제출했다"며 "산을 오르며 내려가야 하듯이 이제 하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또 "부족한 능력과 아둔한 머리에도 불구하고 선배들과 동료들에게서 배운 것들이 가르침과 사랑을 받았다"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감사도 하고 감사도 받겠습니다"라고 고맙고 행복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강 지검장의 짧고 담담한 인사와 달리 후배들은 강 지검장의 사의를 아쉬워하는 마음을 수백 개의 댓글로 표현했다.

한 검사는 댓글을 통해 "캡틴 오 마이 캡틴! 업무든 운동장이든 언제 어디서나 소탈하고 애정으로 대해 주신 감사장님,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또 다른 검사는 "사직의 글에 달린 댓글이 400건을 넘은 건 굉장한 이례적인 일로, 처음이 아닐까 싶다"며 "이런 인사에 감사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보여 주는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법무부는 조만간 대검처장과 서울고검을 비롯한 전국 5개 고검장 등 큰 폭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TV 요리프로그램 유명세 특출... 한 집 건너 한 집꼴 간판에 익숙한 얼굴

수원 인계동에 가면 '백주부'가 보인다?

<요리연구가 백종원>

시청 뒤편 '박스거리' 100m 안팎 백 대표 외식 브랜드만 8개 포진 '제2의 백종원 거리' 입소문 퍼져 방문객 증가... 인근 상권도 활기

20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뒤편 일명 '인계동 박스거리'. 길을 따라 쪽 걷다 보면 건물 간판 위로 익숙한 얼굴과 '백'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최근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을 중흥무진하며 '백주부·백선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를 나타내는 상징들이다. 이곳에 있는 백 대표의 외식 브랜드만 무려 8개다.

3년 전 '쌈밥집'을 시작으로 고깃집인 '새마을식당'과 술집 '한신포차', 맥주집 '백's 비어', 커피전문점 '백다방', '홍콩반점'은 물론 100m 안팎으로 백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한식·중식·일식 브랜드가 줄지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최근 인계동 박스거리가 백 대표의 유명세와 함께 '제2 백종원 거



수원 인계동 박스거리 100m 안팎으로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한식·중식·일식 브랜드가 줄지어 자리잡고 있다.

리'로 회자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블로그에 오르내리며 빠르게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한 거리에서 유명 맛집을 맛볼 수 있어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

연인과 함께 맛집 데이트를 나왔다는 박수영(25·용인시)씨는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돼 좋다"며 "다양한

메뉴와 브랜드가 있어 앞으로 맛집 데이트 성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명세는 인근 상권에도 덩달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인계동 박스에서 3년째 분식 장사를 하는 김화숙 대표는 "2~3년 전부터 수원지역 내 광고와 수원역 등지에 대형 소풍물이 많이 생기면서 손님이 급감했는데, 최근 들어 예전만큼 회

복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종원 대표는 서울 논현동에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등 16개 브랜드를 오픈하면서 일명 '백종원 거리'라는 상권을 구축해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맛집거리'로 자리잡았다.

글·사진=김재혁 기자 kjh@khihoilbo.co.kr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한 음란사이트 운영자 징역 2년형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등지를 돌며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일명 '워터파크 몰카사건' 동영상 유포한 음란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추징금 6천673만여 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컴퓨터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해 음란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26개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제작했다"며 "음란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접속자의 신원이나 연령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2천100여 개의 음란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노출시켰

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 "피고인이 운영한 음란사이트에서는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까지도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공범에게서 "음란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를 맡아 주면 배너광고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음란 동영상 유포 등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 8월 중국에서 자신이 제작한 음란사이트 내 게시판에 '워터파크 몰카 미방출본 1, 2'라는 제목으로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등지에서 촬영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퍼트린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마약사범 집중단속 고삐 경찰, 한 달간 151명 검거

연령 40대·종류는 필로폰이 최대 직업별 무직-의료인-회사원 순

경찰이 마약사범 집중단속 한 달 만에 151명을 검거했다. 2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3개월간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한 달만인 지난 15일 기준 경찰은 마약류 관련 위반 등 혐의로 32명을 구속하고, 1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기간 입건된 마약사범을 보면 마약 약 25명, 대마 11명, 필로폰 77명, 기타 38명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42명, 30대 37명, 20대 14명, 60대 이상 7명 등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 25명, 회사원

13명, 일용직 근로자 9명 등이었다.

실제로 김모(37)씨는 이달 10일 오후 2시 50분께 수원지역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로 집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문을 걸어잠근 채 가스배관을 자르며 대치했으나, 경찰이 집 내부로 진입해 신속하게 김 씨를 검거하면서 다행히 가스 폭발 등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 및 밀반입 사범에 대해 중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에 마약전담 형사뿐 아니라 의사, 수사, 정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첩보를 입수,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hihoilbo.co.kr

마트서 29차례 절도... 전과 4범 50대 女 구속

성남중원경찰서는 중소형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59·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모 마트에서 소고기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올 7월부터 최근까지 중원구와 분당구 소재 마트에서 29차례에 걸쳐 식료품(1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전과 4범(동종 전과 2범)인 A씨는 유흥코너에서 구입한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계산대를 빠져나왔고, 저렴한 물품만 별도로 계산하는 수법으로 마트 직원들의 눈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50여 차례 1억 원 상당 썬캡... 빈집털이범 덜미

구리경찰서는 서울·경기·충청 등을 돌며 대낮에 전문적으로 빈집을 털 혐의(상습절도)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구리시 수택동 B(69)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장롱 속에 있던 현금 550만 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5월경부터 서울과 경기·충청 지역을 무대로 우편함, 신발장, 우유보관함 등에 보관된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거나,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모두 50여 차례에 걸쳐 1억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hihoilbo.co.kr

오늘의 날씨 12월 21일(월)

해동 07:43 | 달동 14:12
해질 17:17 | 달질 02:40

지역	오전	오후
안원	70	20
수원	70	20
동두천	70	20
이천	70	20
양평	70	20
강원	70	20

제공 Kwweather www.630.co.kr

융합창작악극 **알로하 대불** "인천 1904"

전석 무료 공연

2015년 12월 9일(수) ~ 25일(금) | 한중문화원 별관

▶ 공연시간 _ 수요일 ~ 일요일, 평일 17시
휴일 14시, 17시 (월, 화요일 공연 없음)

▶ 예 매 _ http://modernincheon.com/ticket/

▶ 문 의 _ 070-4015-3016

주최 :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관 : (주)에이투티소프트 후원 :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원

경제청, 고행화 연료시설 막혔다고 CO₂ 저감시설까지 'NO'

<이산화탄소>

새 기후변화 체제, 인천은? 온실가스 불감증 심각

인천시는 온실가스 등 대기환경 피해로 골질 광역시설 사례를 든다. 화력발전소·인천공항·인천항·수도권매립지·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기반 시설들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화력발전만 하더라도 9개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력(7만6천400GWh) 중 30% 가량만 인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천 밖 수도권에 쓴다고 꼬집는다. '피해=인천, 혜택=서울·경기'라는 논리다. 그 결과 kW당 0.15원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화력발전시설 5곳에 몰려 연간 110억 원의 세수를 올리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 대신 세금으로 매우고 있는 것이다. 최근 2021년부터 적용될 온실가스 줄이기를 골자로 하는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약'이 채택됐다. 인천의 준비 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감사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 부적절한 의견을 내놨다. 소각로와 전용보일러 이외 분리수거를 전제로 하는 전처리 및 고행연료화 시설(67t)과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88t) 등을 설치하지 말라는 감사원 의견이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조차 못하는 자동집하시설을 가동하면서 무슨 고행화 연료시설까지 설치해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것이었다. 인천경제청의 자원순환시설 설치사업은 저탄소 녹색환경도시 조성의 핵심사업이다. 총 사업비 606억 원을 들여 2016년 5월까지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소각로와 전용보일러(처리용량 하루 110t), 일반고형연료화(SRF)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는 지난 10월 인천경제청에 제안했다. 자원순환시설 소각로에 이산화탄소 저감시설을 설치하지는 것이었다. 전체 사업비의 1%인 6억 원짜리 저감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산화탄소를 하루 10t씩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인천 서구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수증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hihoilbo.co.kr

'감사원 반대' 핑계 대며 설치 불가 방침 실제 감사원은 설치 가능성에 손 들어줘

인천경제청의 답변은 'NO'였다. 전처리와 고행화 연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으니 이산화탄소 저감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핑계 댔다. 하지만 감사원은 불필요한 고행화 연료시설 등과 달리 소각로 등의 이산화탄소 저감시설 설치하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이미 제

시한 상태였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7천829만6천t(이산화탄소 환산톤)에 달한다. 이는 2005년 4천92만5천t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인천시가 관리하는 소각 등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54만7천644t에 이른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할당 대상 업체 중 네 번째로 많은 양이다. 인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이산화탄소 저감 시설을 설치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인천시의회가 청라소각장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제거시설 확대를 인천환경공단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때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은 이설비가 이산화탄소 제거 효과가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다고 둘러댔다. 이산화탄소 t당 제거 비용이 120만 원에서 15만 원대로 내린 시장 상황을 읽지 못했다. 지금과 같은 인식으로는 새 기후변화체제에 대응할 수 없다. <자료=환경부 제공>

■ 인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할당대상 업체

법인명	지정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yr)
현대제철	철강	18,802,29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	1,411,698
SK인천석유화학(주)	정유	1,143,791
인천시	폐기물	547,644
한국지엠(주)	자동차	373,059
인천중합에너지(주)	발전에너지	291,900
인천공항공공사	발전에너지	182,459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	168,827
두산인프라코어(주)	기계	154,998
동서식품(주)	음식료품	142,933
동화기업(주)	목재	119,382
헨즈코퍼레이션(주)	자동차	111,108
(주)디씨알이	석유화학	92,140
대일그린(주)	폐기물	82,574
신창산업(주)	목재	77,253
대한제당(주)	음식료품	76,658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석유화학	61,988
(주)미래엔인천에너지	발전에너지	45,382
셀트리온	석유화학	44,450
대성목재공업(주)	목재	28,691

'새집 지어준다' 희망고문, 한파보다 더 괴로워

르포 향동7가 연안아파트 주민, 기약 없는 기다림 10년째

올 겨울 가장 추웠던 지난 17일, 인천시 중구 향동7가 연안아파트 김재기(72)할아버지 내외가 사는 8동 503호는 영하 5°C의 바깥 온도와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피해 병원 침대에 전기장판까지 깔았지만 낡은 아파트 곳곳에서 냉기가 스며 들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 내외는 50여 년 전 북성동1가 '뽕골'에 등지를 들고 연안부두에서 노점상으로 생계를 꾸려오다 2003년께 처음 '내 집 마련'을 이뤄 이곳 연안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김 할아버지는 인근 인천항에서 불어오는 먼지와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아내 인성선(76)할머니가 호흡기질환으로 수차례 병원 신세를 지자 이듬해 부부는 이사를 맘먹었지만 뜻밖에 단지 전체의 송도 이주 소식

전장 물 새고 누전사고 잦아도 단지 송도 이주 소식 믿고 버텨 죽기 전에 이사 같까 한숨만... 이 들렸다. 그렇게 이주 얘기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이제는 전장에서 물이 새고 5층을 오르내리느라 성 할머니는 양쪽 무릎과 고관절 수술을 받아 거동이 편치 않다. 김 할아버지는 "새집으로 이사시켜 준다더니 이제는 그것도 감감무소식이고, 공공근로도 못해 하루하루 파지를 모아 8천 원 버는 데 난방은 연감생심이다"라고 했다. 56㎡ 남짓의 상가동 2층에 사는 최병순(86)할머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 할머니는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진 1983년에 들어와 30년 넘게 살고 있다. 할머니 나이만큼이나 오래된 아파트는 특하면 누전사고가 발생해 전기가 끊기곤 한



17일 중구 향동7가 연안아파트 8동 503호에서 만난 김재기 할아버지와 성선자 할머니는 전기장판과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다. 수도시설도 고장 나 졸졸 흐르는 물을 받아 화장실 변기 물을 대신하고 있다. 최근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최 할머니를 위해 보일러 수리를 나왔지만 "단순히 보일러만 손봐져 될 일이 아니다"라며 돌아갔다 했다. 건물 전체를 보 수해 누수되는 곳을 찾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최 할머니는 추운 것은 참을 수 있다고 했다. 10년 넘게 송

도에 새집을 지어준다고 해 참고 살았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죽기 전에 이사는 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더 힘들다고 했다. 최 할머니에게 추위보다 더 한 고통은 '희망고문'이다. 김 할아버지, 최 할머니와 같은 신세의 향운·연안아파트 1천275가구 이주조합원들은 현재 인천해수청 앞에서 '송도 이주 촉구 천막농성'을 79일째 이어오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슈퍼에서 빵 훔친 11살 소녀 알고 보니 가정폭력 피해자

초등학교 딸 2년간 감금·학대 친아버지·동거녀 등 3명 구속

초등학교 딸을 2년간 감금하고 학대한 인천수심의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자신의 딸을 감금하고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A(32)씨와 동거녀 B(35)씨, 그리고 동거녀의 친구 C(3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빌라에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딸 D(11)양을 수차례 때리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양은 지난 12일 빌라 세탁실에 갇혀 있다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 인근 슈퍼마켓에서 빵을 훔치려다 가게 주인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슈퍼마켓 주인은 당시 왜소한 여자가 아이 같아 낯선 김소매 티셔츠만 입고 맨발로 서성이고 있어 경찰

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D양의 상태는 거식증 환자처럼 말라 있었고, 몸 곳곳에 흉터와 상처가 있었다. 현재 D양은 녹골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8년 전 아내와 이별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오면서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감금하고 일주일 넘게 밥을 굶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동거녀 B씨와 그의 친구 C씨도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혼육 차원에서 한 것일 뿐"이라고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D양을 아동보호기관에 인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희연 기자 khy@khihoilbo.co.kr

국책과제 제목 등 살짝 바뀌 국가보조금 챙긴 박사들 구속

'표지갈이' 대학교수들처럼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국책과제의 제목이나 내용만 살짝 바꿔 수십억 원대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해외 유명 대학 박사 출신 사업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최용훈)는 국책과제 연구 지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로 벤처사업가 A(57·인천시)씨와 B(59·수원시)씨, C(46·부천시)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D(60)씨 등 이들 회사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책과제를 신청하면서 과제명이나 일부 내용만 살짝 바꿔 고용노동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보조금 운용기관 7곳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 등 5명은 미국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D양을 아동보호기관에 인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희연 기자 khy@khihoilbo.co.kr

국내유일의 100% 디자인 특성화 대학

계원예술대학교

D-innovator

디노베이터가 디자인의 미래다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시모집기간 : 12.24(목) - 01.05(화)

아트계열

사진예술과
순수미술과
응용예술과
공간연출과

라이프스타일계열

라빙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화훼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계열



광고·브랜드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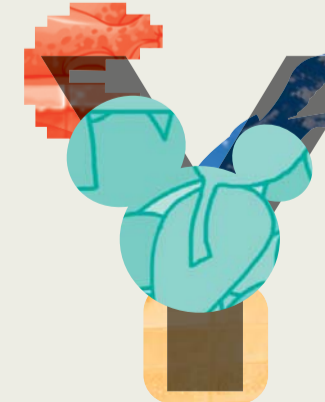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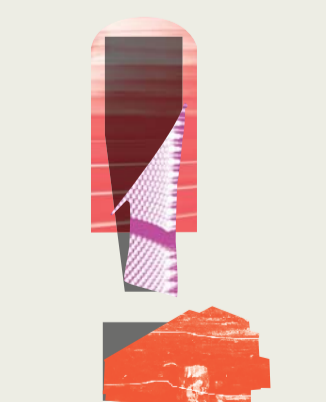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계열

게임미디어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애니메이션과

스페이스계열

건축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전시디자인과





[論 語]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알기만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못하다.



계원예술대학교
KAYWON UNIVERSITY OF ART & DESIGN
www.kaywon.ac.kr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하는 카운트다운 2016년”

Incheon New Year Countdown

행/복/인/천

송년 세야의 밤

문화축제 모

2015.12.31(목) 18:00~00:1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특설무대]

프/로/그/램

★부대행사(18:00~24:00)

- 행운을 찾아라 2016 복주머니 러키드로(상품증정)
- 행복인천 기원 세화(歲畵) 나누기

★1부(21:00~22:50)

- 행복인천 레크리에이션(경품증정)
- 우리인천예술공연(테마공연)

★2부(22:50~23:50)

- 인기가수 축하공연
 - 추가열,비비스(솔비,김경인),제니스(아카펠라 그룹)
 - 오리엔탈 쇼커스(KBS TOP밴드3 8강)
 - 피노키오,김민교,고아라 등

★3부(23:50~00:05)

- 행복인천 기원 타종식
- 행복인천 기원 불꽃쇼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기호일보 (사)문화예술발전협의회

문의 기호일보 사업국 ☎032)761-0007

후원 신한은행

POSCO 포스코건설

디에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POSCO 포스코에너지